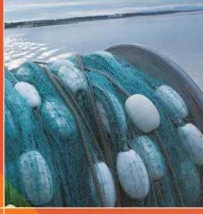


원양산업 종합정보

스리랑카편



KOFA 한국원양산업협회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KOFCC 해외수산업협력센터

목 차

제1장 스리랑카 일반현황	1
1. 개요	3
2. 기후	6
3. 지리	7
4. 정치 동향	8
5. 사회 동향	11
6. 대외관계	15
7. 수출입 제도	18
 제2장 스리랑카 수산업 현황	27
1. 수산업 일반현황	29
2. 해양어업 생산현황	32
3.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생산현황	33
4. 새우 등 양식 현황	35
5. 수출입 현황	38
6. 통조림 생선 생산 현황	43
7. 어가 현황	43
8. 어류 및 수산물의 소비	45
 제3장 스리랑카 수산업 제도	47
1. 관련 기구	49
2. 관련 법 및 제도	53

목 차

제4장 스리랑카 투자제도 및 현황	67
1. 투자환경	69
2. 투자입지여건	79
3. 투자진출형태	81
4. 회사유형	83
5. 청산 및 철수	84
6. 조세제도	85
7. 외환제도	87
 제5장 한-스리랑카 수산업 분야 협력방안	89
1. 스리랑카 수산분야 투자 환경	91
2. 수산분야 투자 영역	91

표 목 차

[표 1] 스리랑카 약황	4
[표 2] 월 평균 기온 및 강수량	6
[표 3] 역대 대통령(2020.8.기준)	8
[표 4] 각주 및 행정구역 명칭	10
[표 5] 스리랑카 독립 이래 집권정당 및 집권기간	11
[표 6] 스리랑카 주요 사회개발 지표	12
[표 7] 수출 상위 10개국(2018년 기준)	18
[표 8] 수입 상위 10개국(2018년 기준)	19
[표 9] 對한 수입 금지 품목	19
[표 10] 스리랑카 산업별 GDP 현황	30
[표 11] 스리랑카 어업 생산현황	31
[표 12] 스리랑카 해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32
[표 13] 스리랑카 내수면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34
[표 14] 치어 및 민물새우 후기자어 내수면 저장량(2018)	34
[표 15] 어류 및 수산물의 수출 (수출량 및 수출액, 2013-2018)	39
[표 16] 어류 및 수산물의 수입(수입량 및 수입액, 2013-2018)	40
[표 17] CFC가 관련한 어류 거래 건(2010-2017)	42
[표 18] 활어, 건어물, 통조림 생선의 1인당 소비량(kg/year)	45
[표 19] 스리랑카 투자유치 현황(2009-2018)	76
[표 20] 對스리랑카 투자국(2009-2018)	77
[표 21] 업종별 스리랑카 FDI 실행 현황	77
[표 22] 국가별 FDI 유입 현황(1998-2018 누적)	79
[표 23] Katunayake EPZ	80
[표 24] Biyagama EPZ	80

표/그림 목차

[그림 1] 스리랑카 지도	5
[그림 2] 스리랑카 EEZ	31
[그림 3] 지역별 해양어업 생산현황	33
[그림 4] 치어 비축	35
[그림 5] Inginiyagala 센터	35
[그림 6] 기수새우 수출량 및 수출액	36
[그림 7] 관상용 어류 수출액	37
[그림 8] 해초 수확	37
[그림 9] 해삼 양식장	37
[그림 10] 2018년 품목별 수출량	39
[그림 11] 2018년 품목별 수출액(Rs.)	40
[그림 12] 2017년 품목별 수입량(MT)	41
[그림 13] 2017년 품목별 수입액(Rs.)	41
[그림 14] 통조림 생선의 현지 생산량 및 수입량(2014-2018)	44
[그림 15] 2018년 어종별 소매가 및 도매가	44
[그림 16] 수산부 조직도	50
[그림 17] 수산부 하부 조직	51

Chapter

1

스리랑카 일반현황

제1장 스리랑카 일반현황

1. 개요

-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은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법률상의 수도는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이고, 제일 큰 도시는 콜롬보임. 이전까지는 콜롬보가 수도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행정 수도)와 콜롬보(정치 경제적 실질적 수도)로 분류되고 있음.
- 예전에는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었으며 한때 인도와 함께 영국의 속령이 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가 1948년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하였고 국호도 '실론'에서 현재의 국호로 변경함
-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생김새'가 꼭 '눈물' 혹은 '진주'처럼 생겨, 지리적으로도 인도의 꼬리 쪽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임
- 국토의 면적은 6만 5610km²로, 남한의 약 2/3 정도 되며, 정글에서부터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음
- 인종은 싱할라인이 75%, 타밀인이 15%, 무슬림(스리랑카 무어) 10%를 차지하고, 언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음. 싱할라어는 스리랑카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이며, 타밀어는 근대 이후 영국인들과 함께 스리랑카로 본격 유입된 인도의 타밀 지방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타밀 사람들의 많은 수가 싱할라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영국 식민 시대의 영향으로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

[표 1] 스리랑카 약황

일반사항	
국 명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수 도	콜롬보(실질적 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행정수도)
인 구	2,180만명 (2019)
면 적	65,610km ² (한반도의 1/3)
민 족	Sinhalese(74.9%), Sri Lankan Tamils(11.2%), Indian Tamils(4.1%), Moors(Muslim 9.3%), 기타(0.5%)
종 교	불교(70.1%), 힌두(12.6%), 이슬람(9.7%), 기독교(7.6%)
언 어	싱할라 및 타밀어, 영어
기 후	열대 몬순기후, 고온다습(연평균 콜롬보 기온 27°)
정치현황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이나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의원집정부제
국가원수	대통령: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 2019.11월 취임) 수상: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경제현황	
GDP	865억 달러(2019년)
1인당 GDP	3,946.59달러(2019년)
경제성장률(GDP)	5.01%(2015년), 4.49%(2016년), 3.42%(2017년), 3.21%(2018년), 2.72%(2019년)
물가상승률	2.24%(2015년), 3.99%(2016년), 6.58%(2017년), 4.27%(2018년), 4.1%(2019년)
무역규모	총수출액(2018년) : 118.9억 달러 총수입액(2018년) : 222.3억 달러
화폐단위	루피, 1루피=100cent
환 율	1불=189루피(20.3월)
우리나라와의 관계	
수교일자	1977.11월
수출입현황	한국의 對스리랑카 수출: 2.82억 달러(2018년) 한국의 對스리랑카 수입: 0.88억 달러(2018년)
투자현황	한→스('18년) : 8300만불, 스→한('18년) : 37.6만불
재외동포 현황	약 1,000명(19.7월)

자료: 외교부



[그림 1] 스리랑카 지도

자료: KOTRA

2. 기후

○ 월평균 기온 및 강수량

[표 2] 월 평균 기온 및 강수량

월	1	2	3	4	5	6
기 온(℃)	27.3	27.7	28.5	29.4	29.0	27.8
강수량(mm)	90.9	164.3	108.3	148.1	404.5	260.4
월	7	8	9	10	11	12
기 온(℃)	27.8	28.0	27.7	28.0	27.6	27.4
강수량(mm)	198.2	21.8	216.8	140.3	204.7	32.3

- 열대 도서국가로서 연평균 26.5℃~28.5℃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임
- 상기 기온은 평균 기온이며, 지역과 일시에 따라 더울 경우에는 35도 이상 기록함. 사계절의 구분이 없으며, 강설이 없고, 고산지대에서도나 서리를 볼 수 있음
- 콜롬보의 월평균 기온은 27.3~29.4℃이며, 연강수량은 약 1,990mm임
 -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의 평균기온은 27.3℃, 기온이 가장 높은 4월의 평균 기온은 29.4℃로서 차이가 2.1℃에 불과하며, 연중 고른 기온분포를 보임. 스리랑카 전체 연강수량은 2,397mm이며, 비교적 건조한 남동부 및 북서부 지역의 경우 연강수량이 900mm 이하, 습윤지대인 중부지방은 5,000mm 이상을 기록함
- 강우량과 강우 시기는 몬순 시기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남서 몬순은 4~6월중, 동북 몬순은 10월 중순~2월 중순에 내습함
- 건조지대에서는 관개수로 및 하천을 중심으로 벼농사 및 전답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인구의 60~70%가 거주하는 습윤지대는 전통적인 수출작물인 홍차, 고무, 코코넛의 주산지임

3. 지리

1) 위치

- 동경 79°40' ~ 81°55', 북위 5°55' ~ 9°50' 사이의 인도 동남부 인도 양에 위치한 도서국임
- 서북단 팔크해협(Palk Strait)에서 인도까지 최근거리가 29km에 불과하며, Adam's Bridge라고 불리는 작은 섬들이 스리랑카와 인도 사이에 위치함
- 서쪽에 마나지협(Gulf of Mannar), 동쪽으로 벵골만(Bay of Bengal)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435km, 최동단에서 최서단까지 225km임
- 1970.10월 12해리 영해를 선언했으며, 1977.2.15 접속수역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함

2) 지형

- 중남부 산악지대(Hill Country)와 기타 해안지대가 있음
- 중부 산악지대에는 최고봉 Pidurutalagala(2,524m) 및 Kirigalpotta(2,388m), Totapalakanda(2,357m), Adam's Peak라 알려진 Sri Pada(2,238m) 등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남부와 서부는 급경사, 동부와 북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고 있음
- 평야지대는 주로 해안을 따라 전개되며, 북부지역에 광대한 평야가 있음
- 하천은 중앙 산악지대에서 시작되며, 수량이 풍부함
 - Mahaweli(333km), Aruvi Aru(167km) 강이 있으며, 폭포로는 Diyaluma(220m), Kurundu Oya(188m) 등이 유명함

4. 정치 동향

1) 정치제도

○ 대통령

- 국가원수, 행정수반 및 군통수권자의 역할
- 국민직선에 의하여 선출, 임기 5년
-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30세 이상의 스리랑카 국민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요함
- 주요 권한
 - 장관점직권 및 국무회의 주재권
 - 고위공무원 임면권(총리 및 각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공소법원장 및 공소법원판사, 검찰총장, 합참 의장, 육·해·공군 사령관, 경찰 총장 등 임명)
 -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권 • 국회해산권
 - 국회에 의해 거부된 법률안 또는 국가 중대사 국민투표 회부권

[표 3] 역대 대통령(2020.8.기준)

당선년도	대통령
1978.2	자야와르데나(UNP) 당선
1982.12	자야와르데나(UNP) 재선
1989.1	프레마다사(UNP) 당선
1993.5	프레마다사 대통령 피살로 국회가 위제통가(UNP)를 대통령에 선출
1994.11	쿠마라통가(SLFP) 당선
1999.12	쿠마라통가(SLFP) 재선
2005.11	마힌다 라자팍사(SLFP) 당선
2010.1	마힌다 라자팍사(SLFP) 재선
2015.1	시리세나(SLFP) 당선
2019.11	고타바야 라자팍사(SLPP) 당선

자료: 외교부

○ 내각

- 2020.7월 내각장관(Cabinet Minister) 14명, 대통령, 국무총리로 임시 내각이 구성됨
- 현역 의원 중 국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
- 내각장관, 부장관,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와 논의, 현역의원 중에서 임명

○ 국회

- 단원제
- 임기 5년, 단 임기 4년 반 경과 이후 대통령이 국회 해산 가능
-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196명과 비례대표제에 의해 임명되는 전국구 의원 29명 등 총 225명
- 대선거구제로 22개 선거구에서 196명의 의원 선출
- 국회의사당은 콜롬보 동부 스리 자야와르데나푸라 코테(Sri Jayawardhanapura Kotte, 행정 수도)에 위치

○ 지방자치제도

- 전국을 9개주(Province)로, 9개주는 25개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으로 구분
- 각주 주지사(Governor) 및 주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 주장관은 주지사 및 주총리가 합의, 현역 주의원 중에 임명
- 주의회(Provincial Council)를 각주에 설치

[표 4] 각주 및 행정구역 명칭

주 (Province)	인구 ※천명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
Western	6,208	Colombo, Gampaha, Kalutara
North Western	2,477	Kurunegala, Puttalam
Uva	1,333	Badulla, Moneragala
Sabaragamuwa	2,009	Ratnapura, Kegalle
Central	2,690	Kandy, Matale, Nuwara Eliya
Eastern	1,600	Batticaloa, Ampara, Trincomalee
Northern	1,107	Jaffna, Mannar, Vavuniya, Mulaitivu, Kilinochchi
Southern	2,584	Galle, Matara, Hambantota
North Central	1,330	Anuradhapura, Polonnaruwa

* Department of Census & Statistics(2016, 21,203천명, 추정치)

○ 법원

- 대법원(Supreme Court), 상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지역법원(District Court), 치안재판소(Magistrates Court), 초급법원(Primary Court)로 구성
- 대법원은 스리랑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대법원장 이외에 6~10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
- 대법원은 헌법소송,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소송, 의회특권 침해에 관한 소송, 선거 소송 등에 관할권을 가지며 하급법원으로 부터 상고된 민·형사 소송의 최종심 역할 수행
- 상소법원은 법원장(President)과 6~11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인신 구속영장 발부, 초급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소송심사 등을 관할

○ 정당

- 자유정당제이며 정당간 이합집산이 심함. 국회의원 당선 시 당적을 유지해야 하며, 임기 중 당적 변경 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당적을 유지한 채 다른 당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잦음

- 2020.6월 현재 70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통일국민당(UNP)과 스리랑카 자유당(SLFP)이 양대 주요정당으로, 독립 이래 교대로 집권해 오고 있음

[표 5] 스리랑카 독립 이래 집권정당 및 집권기간

집권기간	집 권 정 당
1948-56	통일국민당(UNP)
1956-65	스리랑카 자유당(SLFP)
1965-70	통일국민당(UNP)
1970-77	스리랑카 자유당(SLFP)
1977-94	통일국민당(UNP)
1994-2001.12	인민연합(PA)-SLFP, 공산당 등
2001.12-2004.4.3	통일국민당(UNP)
2004.4-2015.1.7	통일인민자유연합(UPFA)-SLFP, JVP 등
2015.1.8-2015.8.16	통일국민당(UNP)
2015.8.17-2018.10.26	거국내각(UNP+SLFP)
2018.10.26-2018.12.16	통일인민자유연합(UPFA)-SLFP, JVP 등
2018.12.16-2019.11.17	통일국민당(UNP), 대통령은 SLFP
2019.11.7-현재	스리랑카 인민전선(SLPP)

5. 사회 동향

1) 사회동향

- 스리랑카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은 전반적으로 인근 서남아 지역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체적인 빈곤지수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민간 빈부 격차는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스리랑카는 불교가 지배적인 국가이며, 불교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편임
- 스리랑카는 2009.5.19 LTTE와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사회 안정이 가속화 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인간개발지수 및 균형발전

- 인간개발지수(HDI)는 꾸준히 상승하여 188개국 중 73위(2014년, 0.757)로 남아시아 내에서 높은 수준

* 남아시아 평균 HDI(2014) : 0.607

- 1인당 GNI가 크게 성장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타밀족이 많은 북부 및 동부지역의 빈곤율은 대체로 20% 이상

* 북부 및 동부지역 제외 빈곤률 : 22.7%(2002) → 6.1%(2012/13)

* 지니계수 : 0.41(2002) → 0.40(2006) → 0.36(2009/10) → 0.36(2013)

- 빈곤 가구에 대한 국가 사회보호프로그램(Samurdhi) 도입을 통해 출산, 사고, 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고 자연재해, 장애, 노령화에 대한 지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 6] 스리랑카 주요 사회개발 지표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	0.736	0.740	0.745	0.750	0.757	-
1인당 GNI (Atlas, 달러)	2,430	2,860	3,360	3,490	3,650	3,800
초등학교 순등록률	94.9	95.1	95.4	96.4	97.2	-
초등학교 수료율	99.1	100.4	97.6	98.5	98.0	-
중등학교 순등록률	84.1	85.4	-	-	-	-
중등학교 수료율	97.6	96.6	92.5	95.4	96.2	-
모성사망률(10만명 당)	35.0	33.0	32.0	32.0	31.0	30.0
영유아사망률(5세 미만, 1,000명 당)	10.9	10.6	10.4	10.2	10.0	9.8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 비율	91.0	92.0	93.0	95.0	96.0	96.0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92.0	93.0	94.0	95.0	95.0	95.0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3) 사회 제도 동향

- (교육) 무상교육을 오랫동안 실시해 온 스리랑카는 초·중등학교의 등록률 및 수료율 모두 매우 높음
 - * 초등학교 등록률(97.2%), 수료율(98%)
- 다만, 고등교육의 경우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약 2% 수준으로 높지 않고, 교사(외국어, 기술 분야)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 무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보호 시스템이 비교적 양호하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 부족 문제가 남아있음.
 - 아동 영양 결핍, Dengue열과 콜레라 등 유행성 질병 발병 해소가 필요하며,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보호서비스 제공 필요가 대두됨
- (인프라) 스리랑카의 인프라부문 경쟁력 순위는 73위*로 교통 및 전력 부문 개선이 필요
 - * 2016-20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 3.95(138개국 중 73위)
- (도로) 도로의 이용률(여객의 90%, 화물의 98%)은 매우 높은 반면 도로의 50% 이상이 재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
 -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도로망을 개선,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항만) 콜롬보 항구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총 90%의 화물을 담당하며 남아시아의 중심 항구로 성장 중임
 - 한편,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하나인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일명 진주목걸이 전략*)'의 거점지역으로 중국은 최근 스리랑카 남부의 함반토타를 인도양 거점항구로 개발 중

* 중국이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

- 함반토타 항구 건설 시, 남아시아 전역의 수출품들이 이곳을 거쳐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수출될 전망으로 스리랑카 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연 8%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콜롬보 항구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최근 신항만을 건설하였으나 신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할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

○ (상하수도) 빠른 도시화로 인한 상하수도 및 위생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함

- 2012년 기준 스리랑카의 상수도 보급률은 43.5%로 콜롬보(87.3)나 캔디(57.7%)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개발소외 지역인 북부(7.7%)와 사바라가무와(Sabaragamuwa)주(24.7%)는 보급률이 낮은 편
- 도시-지방 간 상하수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향상된 식수 접근 가능 인구 비율(2015) : 99%(도시), 95%(농촌)

○ (에너지) 스리랑카의 전력생산 능력은 자체적으로 국가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낙후된 전력시설과 잦은 정전 등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자주 발생

- 총 발전량의 61%(2014년 석유 35%, 석탄 26%)를 화력발전에 의해 생산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LNG발전,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확대 등 발전 방식 다양화가 필요
- 풍력과 태양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 보급을 국가 에너지 정책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있음. 에너지 활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보급개선이 필요

6. 대외관계

1) 외교정책 기조

- 비동맹 중립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상 차이를 보임
- 전통적으로 UNP(통일국민당) 정권은 친서방 경향을 나타냈으나, PA(스리랑카 자유당을 주축으로 한 정당연합) 정부의 경우 비동맹 노선을 강조
- 미국, 일본, EU 및 중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편향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추구

2) 주요 국가와의 관계

- 인도
 -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계 획정, 타밀문제, 영국통치 기간 중 유입한 인도인 처리문제 등으로 한때 강대국 인도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바 있음
 - 스리랑카는 인도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타밀사태의 장기화로 1987.7.29. 인·스 평화협력 체결 및 인도 평화유지군 주둔 등으로 인해 인도의 지속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음
 - 1990.3월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1년 인도 Tamil Nadu 주 정권 교체 등으로 인도정부와 우호협력관계가 증진
 - 2014.6월 인도 모디 총리 및 2015.1월 시리세나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은 정상 및 외교장관의 상호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나감

○ 중국

- 중국은 1957.3월 국교 수립 이래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지원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의 대서방관계 강화로 양국관계가 일시 소원하기도 했으나, 1980.1월 중국의 3,290만 미불 상당 무이자 차관 공여협정 체결 이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중국은 2006년 말까지 스리랑카에 무상원조 63.9백만 위안, 신용 수출 64.5백만 위안, 차관 96백만 위안을 제공하였고,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콜롬보 소재 국제회의장 (BMICH), △대법원 단지 조성, △중앙우편국, △Ging강 홍수예방사업, △아동병원 건립사업이 있으며, 쓰나미 재건복구를 위해서 3억 미불 상당을 지원
- 중국은 2014년 대스리랑카 원조 최대 공여국으로서, 4억 1,158만불 차관을 지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는 콜롬보 항구도시 건설, 중부 고속도로 건설, 넬룸 쿠루나 타워(Lotus Tower) 건설 등이 있음

○ 미·영 등 서방제국

-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비동맹 세력의 중추로 활약할 당시에는 서방과의 관계가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적도 있었음
- 1977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유치 등을 위해 미국, 일본 및 EU 국가 등 서방제국과 우호친선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스리랑카는 독립 공화국이나, 영연방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영연방 회원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중(1948년 독립 이래 정치·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1948년 스리랑카 독립 이래 20억불(2015.2월 기준)에 이르는 원조, 쓰나미 피해구호, 대미 무역관세 특혜부여 등을 통하여 스리랑카의 경제성장에 지원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며 유엔 인권 이사회의 스리랑카 인권결의 채택을 주도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스리랑카 인권 개선을 촉구해왔음

○ 일본

- 스리랑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의 자유화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2008년까지 스리랑카에 대한 최대 원조공여국으로서,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중임
- 2009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스리랑카 지원으로 인해 최대 원조 공여국 지위를 중국에 내어주었으나, 2013.3월 라자팍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어 2013.5월 아소 일본 부총리의 스리랑카 방문으로 양국은 경제개발(4억불 차관, 3천만불 무상협력), 해양안보 및 지상과 디지털 방송분야 협력을 강화
- 일본의 對스리랑카 ODA 실적은 2014년 2억 5,656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프로젝트로는 Vavuniya-Kilinochchi 지역 간 송전선 설치, 디지털 지상방송 개발 지원 등이 있음
- 2017.4.11-13 위크라마싱하 총리는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와의 회담하고, 트링코말리항 개발 프로그램(10억엔 상당 항구 운영 관련 물품 공여), 농촌 인프라개발프로젝트(관개, 수자원 공급 등 관련 129억엔 차관), Kalu Ganga 상수도 확대사업프로젝트(318억엔 차관)에 합의함
- 2018년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2019년 하라다 켄지 방위장무대신이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등, 국방 분야 특히 양국 해군 간 재난 구조 훈련 등 협력안이 진행 중

○ 파키스탄

-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지역 정치 구도 내 인도, 파키스탄 양대 주도세력과의 관계에서 취해온 전통적인 균형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인도와는 달리 군사협력을 유지

7. 수출입 제도

1) 국가별 수출입 규모

[표 7] 수출 상위 10개국(2018년 기준)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732,067,408
2	인도	1,147,893,409
3	독일	833,084,486
4	영국	771,528,106
5	이탈리아	497,680,860
6	프랑스	387,834,587
7	벨기에	382,403,017
8	중화인민공화국	304,843,926
9	네덜란드	247,834,589
10	아랍에미리트	177,271,350

자료 : UN Comtrade

[표 8] 수입 상위 10개국(2018년 기준)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4,292,760,747
2	중화인민공화국	4,251,324,656
3	싱가포르	1,702,449,583
4	일본	1,186,584,243
5	아랍에미리트	910,227,810
6	말레이시아	679,972,660
7	홍콩	513,796,507
8	독일	405,476,978
9	Other Asia, nes	395,654,086
10	영국	385,002,950

자료 : UN Comtrade

2) 對한 수입규제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 없음
- 수입금지품목
 - 스리랑카는 수출입통제부(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제한품목(restricted items)과 금지품목(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지며, 금지 품목은 하기와 같음

[표 9] 對한 수입 금지 품목

- 종교 지도자, 종교 추종자 또는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모욕을 포함하는 그림, 로고, 기호, 상표, 상품 또는 기타 종류
-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종교 지도자 및 추종자를 보육하거나 저버리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쇄 된 문서
- 모든 종류의 무기, 폭탄, 총알 및 위험한 가스를 생성하는 모든 것
- 담배, 담배 및 모든 담배 혼합 제품 (담배를 스리랑카로 반입하려면 특별 허가 필요)
- 불법 인쇄 된 책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폭죽류 (스리랑카 세관에 의해 결정)
- 천 또는 기타 물체에 인쇄 된 어음 및 약속어음
- 치명적인 무기로 전환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 장난감 총 또는 물건 또는 물품
- 원산지가 없는 계란
- 손상되거나 썩거나 악취가 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에 법적으로 좋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관련 제품
- 모든 유형의 축음기 관련 상품
- 면도에 사용되는 일본식 브러시
- 복권, 전단지 등
- 동물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없는 육류, 명확하게 식별 할 수없는 동물의 부분, 식용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동물의 일부에 남은 부분
-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은 고기 부분
- 동물 머리를 얹은 고기

3)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 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음.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짐
- 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함.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 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임
-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

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음.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 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됨
- 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 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음.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됨

○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 스리랑카 관세청(www.customs.gov.lk)으로 접속
- 상단 메뉴에서 "Business"의 "Tariff Changes"를 클릭
- Tariff Changes 페이지 중간의 진한 분홍색 바탕의 "Updated New Customs Tariff 2019.03.15."을 클릭
- HS Code 별로 해당 Chapter를 찾아서 관세율을 확인

4) 주요 인증제도

○ 인증제도

- 스리랑카 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 Institute)은 스리랑카 국가표준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됐으며 관련법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of 1984임.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스리랑카도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채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한 ISO 9,000시리즈 표준, 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0 표준, 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 보증, GMP(Good Management Practices Certificate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50001을 채택하고 있음
- 수입(표준 및 품질관리) 관리규정 2001은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10일 해당 품목에서 붉은 편두, 백설탕, 흑설탕이 제외되고 2016년 2월 11일 HS Code 84.81(탭 코크 밸브)가 포함돼 총 121개가 있음. 이들 제품 수입 시 품질 및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입 검사 스킴(IIS: Import Inspection Scheme)을 받아야 함
- 수입상은 수출국 실험기관(스리랑카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 또는 공인된 증명기관)이 발급한 규정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는 스리랑카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됨을 인증하는 것임
-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됐는데, 근거법은 Act 32 O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하는 것임

-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인증서)을 명시함

○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

-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 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음.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수입표준 및 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음
-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 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음.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음
-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일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음

5) 통관절차 및 운송

○ 통관 유형별 절차

- 수출입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에 사업자 등록을 해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고, 다음으로 세관에 수출입업자 등록 함. 납세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http://www.ird.gov.lk/en/Downloads/SitePages/Forms.aspx?menuid=1603>)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
- 스리랑카 관세청의 수입담당 부서는 콜롬보 항의 해상화물과 콜롬보 국제공항(Bandaranaike International Airport)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로 나뉨
- 수입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된 세관신고서(CUSDEC : a Completed Customs Declaration)를 기타 수입 관련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품 종류에 따라 세관신고서 제출 전에 허가 및 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세관은 특정 수입 화물의 반출에 앞서 수입허가품목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Import and Export Control Department, Sri Lanka Standard Institution, Health Department 등)으로부터 필요한 수입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스리랑카 내 차(tea)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리랑카 차 위원회(The Ceylon Tea Board)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수입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수입 관련 서류는 케이스별로 다르나 대체로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Exchange Document,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음

- 통과 화물(보세지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수입돼 재수출되는 화물)에는 제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선적 전 검사 제도도 없음
-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 System) Numbering System은 상품 코드의 약칭으로 일종의 국제 무역 용어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임. 전 세계적으로 101개의 기관이 가입돼 있음. 스리랑카에는 EAN Sri Lanka에서 EAN Bar Code 번호를 할당 부여하고 있음. 한편, Uniform Product Code(UPC)는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특별 코드 시스템으로서 스리랑카 무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EAN 스리랑카에 요청
- 기타 일반수입품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통관절차를 따름. 그러나 이삿짐, 샘플 등 소량을 해상 운송 시 세관통관(Custom's Clearance)은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아닌 관세사가 있는 세관에 등록된 운송업체가 해야 함. 아울러 Demurrage 비용(수입품의 정박 초과료)이 일수에 따라 아주 급격한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마찰로 인해 통관검사가 늦어져 과다한 정박 초과료가 발생하곤 함. 이 정박 초과료를 누가 부담할지는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됨

○ 통관 시 유의사항

- 통관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음. 특히 투자청(BOI) 관리기업들 중 투자청(BOI)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단지까지 컨테이너가 들어온 상태에서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리함. 보통 항구에 화물이 도착한 통보를 선사로부터 받는 시점으로부터 약 2~3일이면 원부자재 통관을 완료해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
-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현지 투자기업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공장까지 곧바로 들여오지 못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들여온 후, 세관의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음. 또한, 스리랑카 내 만연한 비효율적 행정관행은 통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예측하기 어려운 관행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EMS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령 주소지까지 현지 EMS 업체에서 배달토록 되어 있지만, 통관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물품이 다소 클 경우에는 EMS 픽업센터로 직접 가서 세관 담당자의 간단한 확인 하에 통관을 시키고(필요 시 관세 지불)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들이 있음

Chapter

2

스리랑카 수산업 현황

제2장 스리랑카 수산업 현황

1. 수산업 일반현황

- 스리랑카의 수산 자원은 517,000km²의, 영해 21,500km², 석호와 강 어귀 1,580km², 인공 저수지 5,200km²를 포함하는 내수로부터 얻어짐. 해안 및 저수지 지역에 위치한 만, 석호, 저수지 및 특정 토지는 양식 개발을 위한 자원 기반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스리랑카에서 어업은 2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짐. 어업은 해안 공동체의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였음. 특히, 영국 통치로부터 스리랑카가 독립한 1948년 이후 수년 동안 해양 어업은 생계 활동 수준에서 수십억 루피 규모의 산업으로 점차 발전해왔음. 내수면 어업과 수산양식은 75년 이상 되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산업임. 해안 수산양식은 1980년대 초 북서부 지방에 새우 양식장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해양 수산양식은 훨씬 늦은 약 2010년경에 시작되었음
- 수산업 부문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1.4%를 기여하며, 약 575,000명(국가 노동력의 3.7%)에게 직간접 고용을 제공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연간 어류 생산량은 527,060MT으로 부가가치는 1억 3천만 달러 이상임. 수산업은 또한 참치, 새우, 가재, 게, 해삼, 관상어 등 생산량의 약 5%를 수출하고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 수출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음. 어류는 대중의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임. 현재 현지 어류 생산량은 국가 소비에 필요한 총 어류 양의 약 65%를 충족하며 나머지 필요량은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음. 정부는 총 수요량을 현지 어업 및 수산양식 생산량에서 충당하거나 혹은 대안적으로 어류 수출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이용해 어류 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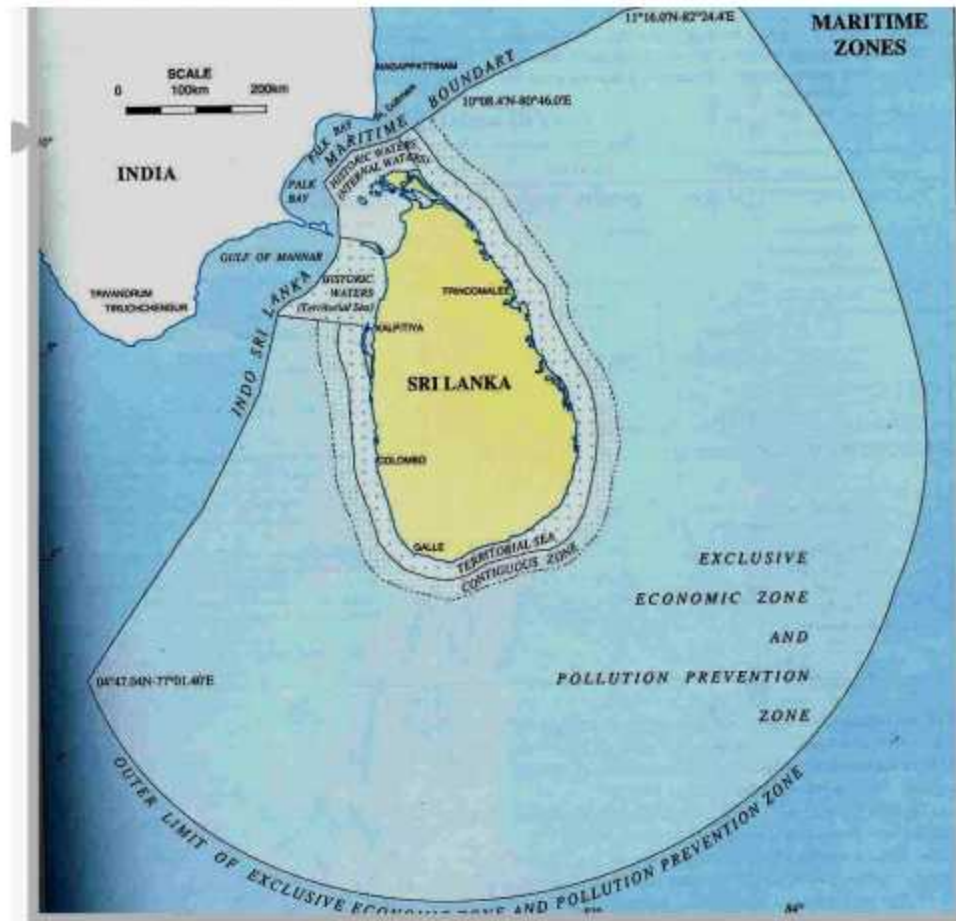
[표 10] 스리랑카 산업별 GDP 현황

구분		GDP 비중	
1차	농업	4.1%	7.0%
	축산업	0.6%	
	임업	0.7%	
	수산업	1.2%	
2차	광업	2.3%	26.1%
	제조업	15.5%	
	전기, 수도, 가스	1.4%	
	건설업	6.8%	
3차	도소매업	23.3%	57.7%
	정보통신	0.7%	
	금융, 부동산	14.0%	
	전문서비스 및 기타 개인용역업	11.6%	
	교육, 보건, 사회사업, 공공행정 등 공공서비스	8.1%	
순생산물세(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s)		9.2%	
계		100%	

자료: 2018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례보고서 Table 2.1

- 스리랑카 2018년 총 어업 생산량은 527,060MT으로 2017년 531,310MT 대비 0.8% 감소함. 총 어업 생산량 감소는 주로 해양(특히 연안) 어업 생산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7년 449,440MT과 비교했을 때 2018년 해양 어류 생산은 439,370MT으로 2.24% 감소했으며, 연안 어류 생산량은 2017년 259,720MT에 비해 2018년 249,020MT으로 4.12% 감소함
- 한편 외해/심해 생산량은 190,350MT으로 0.33% 증가함. 해양 어류 생산량의 감소는 주로 2018년 2분기 중 서부 및 남부 해안 지역에서 악천후로 인해 소형보트 운항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함. 반면, 내수면 및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도 81,870MT에 비해 7.1% 증가한

87,690MT을 기록함. 내수면 및 양식업 생산 증대는 2018년 초기에 주요 저수지들의 수위가 회복되며 더 많은 치어들이 수조로 방류되었고, 어업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더 개선되었기 때문임



[그림 2] 스리랑카 EEZ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표 11] 스리랑카 어업 생산현황

(단위: MT)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Marine Sector	445,930	459,300	452,890	456,990	449,440	439,370
1. Coastal	267,980	278,850	269,020	274,160	259,720	249,020
2. Offshore/Deep Sea	177,950	180,450	183,870	182,830	189,720	190,350
Inland and Aquaculture Sector	66,910	75,750	67,300	73,930	81,870	87,690
Total	512,840	535,050	520,190	530,920	531,310	527,060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2. 해양어업 생산현황

- 스리랑카의 해양 어업은 연안과 외해/심해 어업의 두 가지 주요 하위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연안 어업은 439,370MT의 생산량을 통해 총 어업 생산량의 83%에 기여하였지만 이는 2017년의 449,440MT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임. Balava(가다랑어)와 Kelawalla(황다랑어)가 포획 어업의 주요 어종이었고, 각각 2018년 총 해양 어업 생산량의 13%와 9%를 차지함. 전년대비 Balava의 생산량은 5% 감소한 반면, Kelawalla의 생산량은 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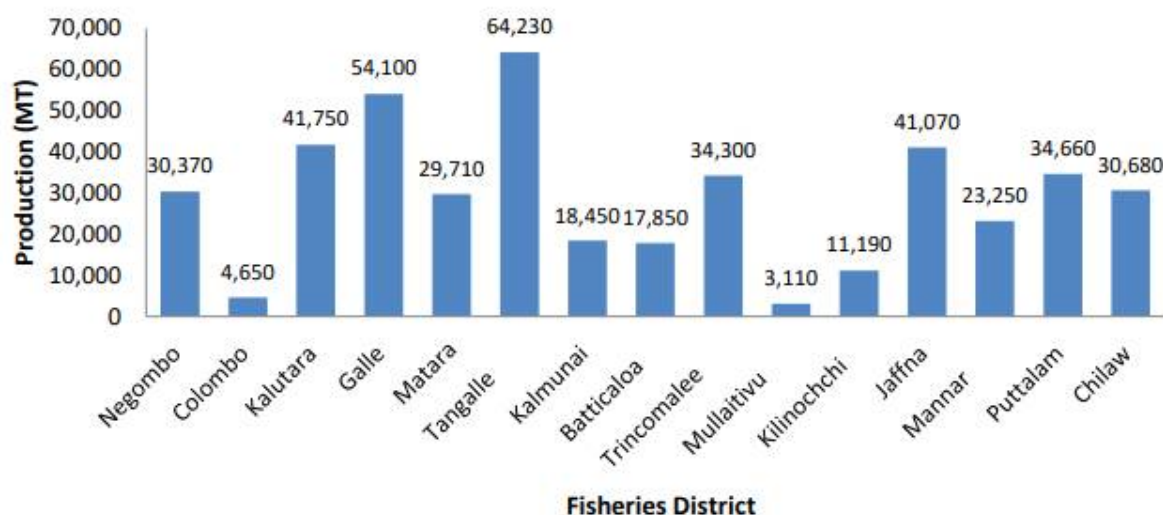
[표 12] 스리랑카 해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MT)

어종	2014	2015	2016	2017	2018
Thora(Seer) 삼치	30,000	8,940	7,440	7,790	7,670
Paraw(Carangids) 전갱이	29,270	34,050	32,620	23,690	22,290
Balaya(Skipjack tuna) 가다랑어	61,750	54,040	47,730	57,960	55,000
Kelawalla(Yellow fin tuna) 황다랑어	45,200	46,430	39,600	38,960	41,690
Other Blood Fish(Other tuna like species) 그 외 다랑어 유사어종	59,190	46,930	38,750	44,520	51,900
Thalapath(Other bill fish) 그 외 주둥이가 긴 어종	-	26,040	32,530	33,180	32,680
Others 그 외	233,890	236,460	258,320	243,340	228,140
Total	459,300	452,890	456,990	449,440	439,370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스리랑카의 지역별 어획량을 보면, 2018년 기준 Tangalle(15%), Galle(12%)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주요 어업 생산 지역이며, Kalutara(10%), Jaffna(9%), Puttalam(8%) and Trincomalee(8%)가 그 뒤를 이음



[그림 3] 지역별 해양어업 생산현황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3. 내수면 및 양식업 생산현황

- 내수면 어업 및 수산양식 분야의 2018년 총 생산량은 87,690 MT로 스리랑카 총 어업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였음. 2018년 초의 기후 조건 덕분에 주요 저수지들의 수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치어들이 방류되었다는 점과 어업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더 향상되었다는 점이 내수면 어업 및 수산양식 생산량의 증가에 주로 기여함. Ampara(16%), Anuradhapura(15%), 그리고 Polonnaruwa(13%)가 주된 내수면 어업 지구임. [표13]은 내수면 어업 어종별 생산량(MT)을 나타낸 것임. 틸라피아 어종이 2018년 내수면 어업 및 수산양식 생산량의 거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기여함. 다른 어종 중에서는 주로 수출용으로 쓰이는 양식 새우(shrimp)가 총 생산량의 9%를 차지하며, 양식 새우(shrimp) 생산량은 2017년 대비 76%의 큰 증가폭을 보임

[표 13] 스리랑카 내수면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MT)

어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틸라피아	39,070	46,610	40,504	43,836	50,065	51,810
잉어/Mirigal	3,450	3,920	2,847	3,363	4,250	3,630
카틀라 잉어/Rohu	8,980	11,020	9,117	7,772	8,435	9,115
Hiri Kanaya	590	580	358	230	330	300
Lula	2,040	2,230	1,582	1,849	2,765	1,645
양식 새우(shrimp)	4,430	5,040	6,836	6,028	4,630	8,180
민물 새우(prawn)	540	460	374	705	890	1,340
양식 방구스 & 농어	90	70	78	174	290	515
그 외 야생어종	7,720	5,820	5,604	9,973	10,215	11,155
Total	66,910	75,750	67,300	73,930	81,870	87,690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내수면 수역에서 치어를 저장하고 방류하는 것은 내수면 어업 생산량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침. [표14]는 치어 및 민물 새우(prawn) 후기 자어의 2018년 내수면 수역 저장량을 보여주는 표임

[표 14] 치어 및 민물새우 후기자어 내수면 저장량(2018)

수역종류	치어		민물새우(PRAWN) 후기자어	
	수조 개수	저장량(백만)	수조 개수	저장량(백만)
주요 저수지	41	30	30	22
중간크기 저수지	78	31	48	25
작은 저수지	288	33	132	23
계절용 수조	491	9	3	0.1
연못	1,170	3	36	0.6
그 외*	-	3.7	8	3
총 생산량	2,068	109.7	257	73.7

* 그 외: 석호/호수/동굴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수산양식청(NAQDA)은 거의 1억 1천마리의 치어를 각기 다른 종류의 수역으로 방류함. 주요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간 크기 및 작은 저수지와 계절용 수조를 포함하여 방류함. 이들 중 작은 저수지들이 가장 주요한 방류지였으며 총 치어의 30%가 방류되었음
- 수산양식 생산량에서는 방구스(milk fish), 농어, 새우(shrimp)와 민물 새우(prawn) 생산량이 2017년 대비 각각 78%, 77%, 그리고 51% 증가하였으며, 그 생산량은 2018년에 크게 증가함

4. 새우 등 양식 현황

- 치어의 비축
 - 수산양식청(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Authority)는 어류 종자 생산에 책임을 갖고 치어/민물 후기 자어를 생산하여 어업 생산량 증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림 4] 치어 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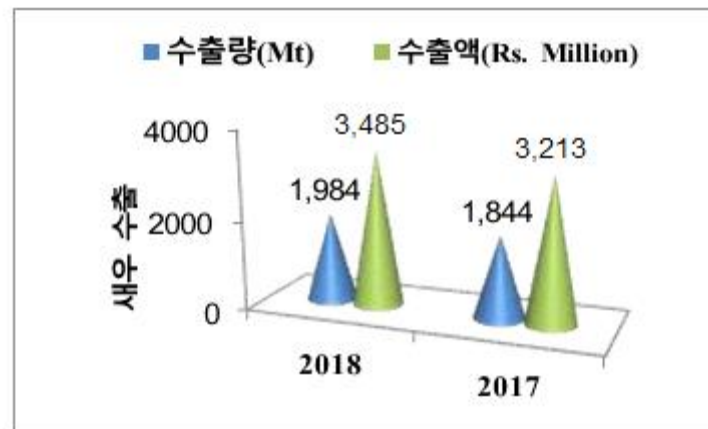


[그림 5] Inginiyagala 센터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기수역 새우(Brackish water Prawn) 양식
 - 생산량 : 2017년 4,630MT, 2018년 8,181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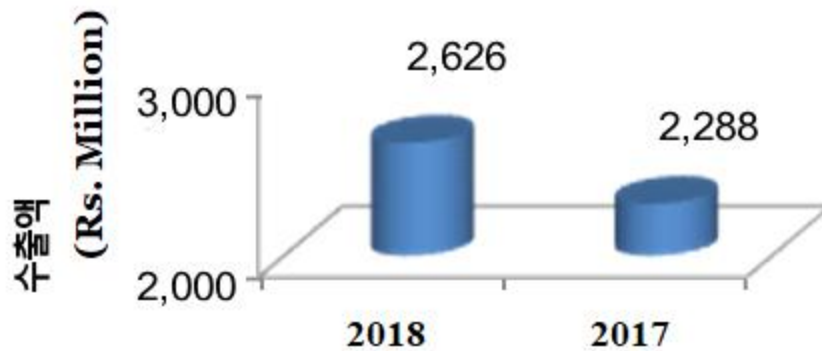
- 집중양식 하에서 정수처리시스템의 수를 늘리고 생물학적으로 양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졌고, 북서부 지방에서 최대 수확을 달성함



[그림 6] 기수새우 수출량 및 수출액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수산양식청은 기수 새우 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높은 생산성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태평양 흰다리 새우(*Litopenaeus vannamei*)를 도입함
- 관상용 어류 및 수생식물(Ornamental fish and Aquatic plants) 양식
 - 수산양식청은 새로운 관상용 어류계통 및 수생식물의 개발과 수출, 신기술의 개발, 친어의 공급, 질병 진단, 교육 제공 및 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Rambodagalla에 설립된 조직배양 실험실은 관상용 어류 및 수생식물 번식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의 응용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실험실의 주 목적은 외화를 얻는 것임. 2018년에는 수생식물 88,086개체가 생산되었고, 그 중 63,500개체가 수출됨



[그림 7] 관상용 어류 수출액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해초(Sea weed) 양식

- 해초양식 프로젝트는 Jaffna, Kilinochchi, Mannar, 그리고 Putthalam 지구의 지역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민간업체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2018년에는 해초 322MT가 생산됨

○ 해삼(Sea Cucumber) 양식 및 사육

- 해삼 양식은 Mannar, Kilinochchi와 Jaffna 지구에서 시작되었고, 2018년에는 해삼 196MT이 수확되었고, 해삼 치어 105,000개체가 생산됨



[그림 8] 해초 수확



[그림 9] 해삼 양식장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 농어(Sea Bass) 양식 및 사육

- Gampaha, Batticola, Galle, Trincomalee와 Putthalam 지구에서 민간부문이 농어 양식에 참여하고 있음. USD 4Million의 투자로 민간 기업에서 시작된 농어 양식 추가 프로젝트는 Trincomalee 앞바다에서 시행 중임
- 2018년 농어 치어 생산량 : 350,000마리
- 2018년 농어 치어 비축량 : 147,820마리
- 2018년 농어 치어 수확량 : 340MT

5.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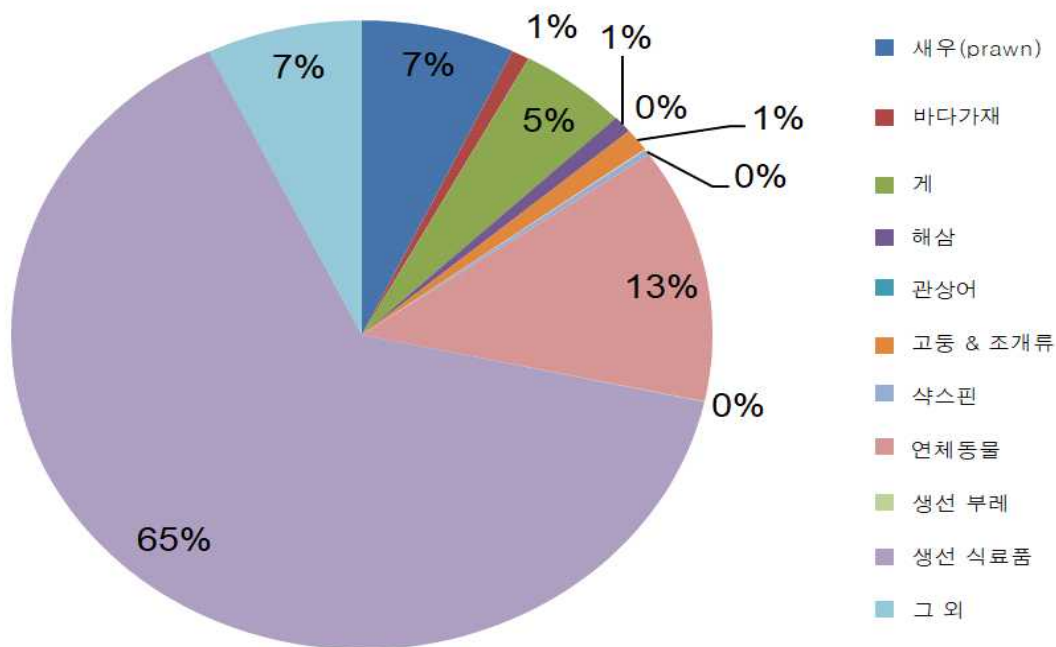
스리랑카의 어류와 수산물은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거래됨.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 경로는 조립자, 중매업자, 그리고 소매업자로 구성되며, 수출 경로는 에이전트, 가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로 구성됨. 최근 몇 년간에는 교외에 지역 도매시장이 소수 등장하여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만들어냈음. 스리랑카는 질 좋은 참다랑어의 수출국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스리랑카의 어류 및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 유럽과 미국임. 스리랑카는 중국, 몰디브,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으로부터 상당한 양(84,463MT)의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건어물(38%)을 수입하여 국내의 초과되는 수요를 조달하고 있음

○ 어류 및 수산물의 수출

-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스리랑카 어류 및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임. 수출되는 모든 어류 및 수산물은 (HS) 코드 03에 의해 분류되고, 이에 따라 제품들은 활어, 신선 또는 냉장 생선, 냉동 생선, 생선 펠렛, 그리고 그 외 어육, 건어물, 소금에 절이거나 소금물에 담가진 생선, 갑각류, 연체류, 그리고 갑각류

외의 수생 무척추동물로 분류됨

- 스리랑카는 2018년에만 479억 4800만 Rs.의 가치를 가지는 어류 및 수산물 27,009 MT을 수출함. 2017년 대비 수출량은 13%, 그리고 소득은 22% 증가함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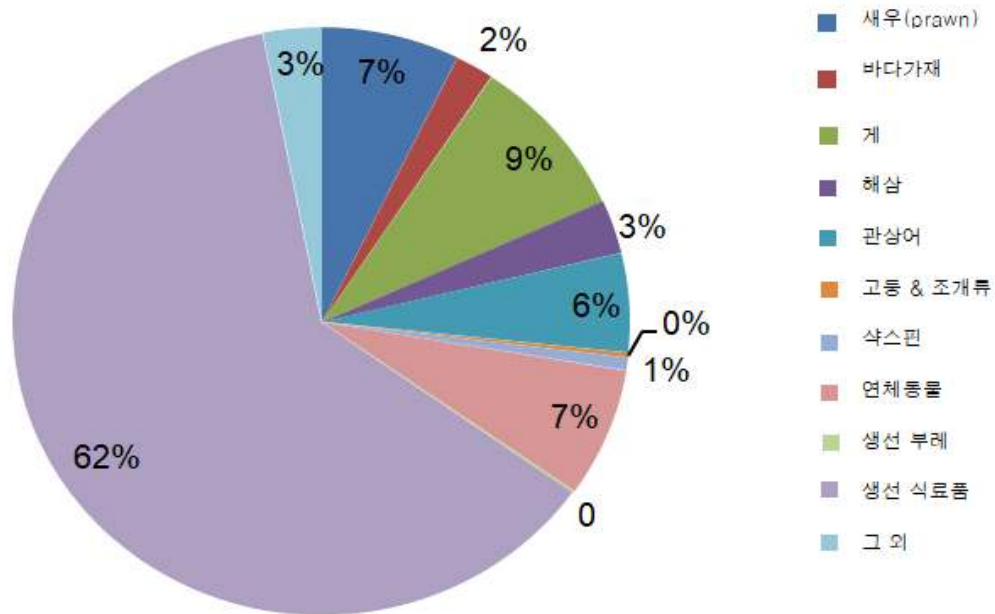
※ 참고 : 관상어 또는 활어는 물이 담긴 용기에 담겨 수출되므로, 그 양을 추정할 수 없음

[그림 10] 2018년 품목별 수출량

[표 15] 어류 및 수산물의 수출 (수출량 및 수출액, 2013-201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량 (MT)	23,911	26,320	17,461	17,593	24,827	27,998
수출액 (백만 Rs.)	31,792	34,796	24,716	26,801	39,230	47,948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그림 11] 2018년 품목별 수출액(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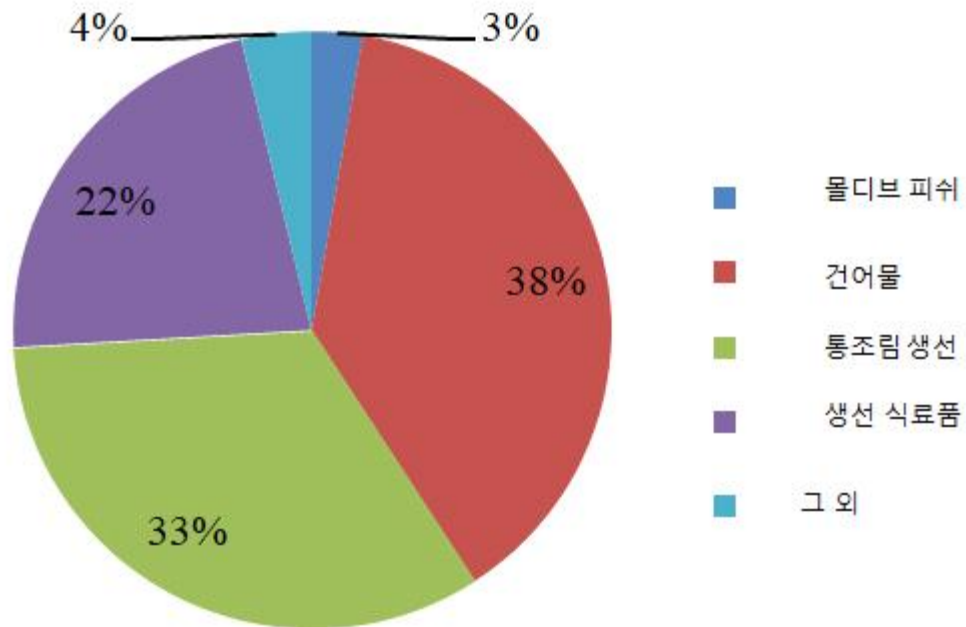
○ 어류 및 수산물의 수입

- 스리랑카는 다양한 종류의 어류 및 수산물을 수입함(통조림 생선, 몰디브 피쉬(몰디브 피쉬), 그리고 작은 청어 종류(sprat))
- 스리랑카는 2018년에 327억 2600만 Rs.에 해당하는 어류 및 수산물을 84,463MT 수입하였지만, 이는 2017년 대비 21,557MT(20%) 및 1억 243만 Rs.(4%)가 각각 감소한 수치임. 건어물은 통조림 생선에 뒤 이어 2018년에 수입한 주요 수산물 중 하나임

[표 16] 어류 및 수산물의 수입 (수입량 및 수입액,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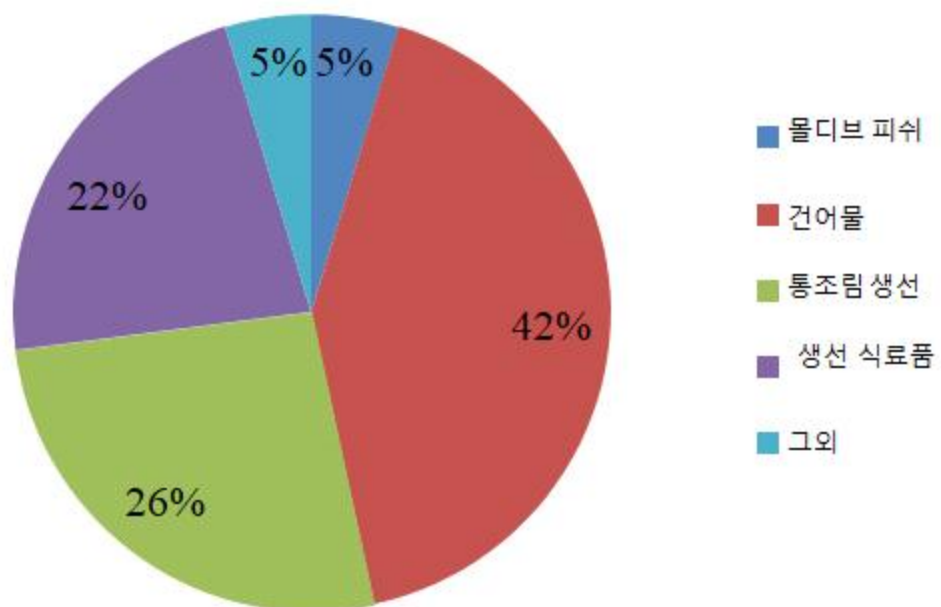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량 (MT)	78,400	78,712	120,046	115,693	106,020	84,463
수입액 (백만 Rs.)	21,119	18,861	30,729	35,173	33,969	32,726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그림 12] 2017년 품목별 수입량(MT)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그림 13] 2017년 품목별 수입액(Rs.)

○ 현지 수산물 거래 현황

- 스리랑카 현지의 어류 거래에는 민간과 정부 모두가 참여함
- 현지 시장은 도시의 도매 수산시장, 소매업자, 노점상, Ceylon 어업 조합(CFC), 그리고 슈퍼마켓의 직판점으로 구성되며, Colombo에 위치한 St. John's 수산시장(SJM)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자 국내 어류 거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음. 그 외의 지역 도매 시장은 Galle, Kandy, 그리고 Anuradhapura에 위치해있음. 추가로 소매업자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어류가 거래됨
- CFC는 스리랑카에서 어류 및 수산물의 포획, 마케팅, 그리고 수출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며, 2010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CFC가 관여한 어류의 거래 건은 하기 표와 같음

[표 17] CFC가 관여한 어류 거래 건 (2010-2017)

판매 (MT)					구매 (MT)						
년도	Laksathosa 직판점 & 협력도시	병원	CFC 직판점 이동트럭, 승합차, 그외	총 판매량	콜롬보 지역 도매 시장 운영	해외 어선	정박지	민간 공급	내수면 어업	수입량	총 구매량
2010	256	338	2,864	3,458	998	515	1,262	416	21	336	3,548
2011	510	200	4,035	4,745	1,209	694	1,787	1017	29	243	4,979
2012	429	232	3,949	4,610	1,178	980	1,799	838	-	71	4,866
2013	255	201	3,521	3,977	1,230	1,212	-	1328	-	478	4,248
2014	172	202	3,565	3,939	736	872	1,893	466	-	148	4,115
2015	54	193	3,414	3,661	791	-	1,977	396	-	102	3,266
2016	159	196	3,506	3,861	478	-	2,409	732	-	-	3,619
2017	133	222	3,027	3,382	493	-	2,598	680	-	-	3,771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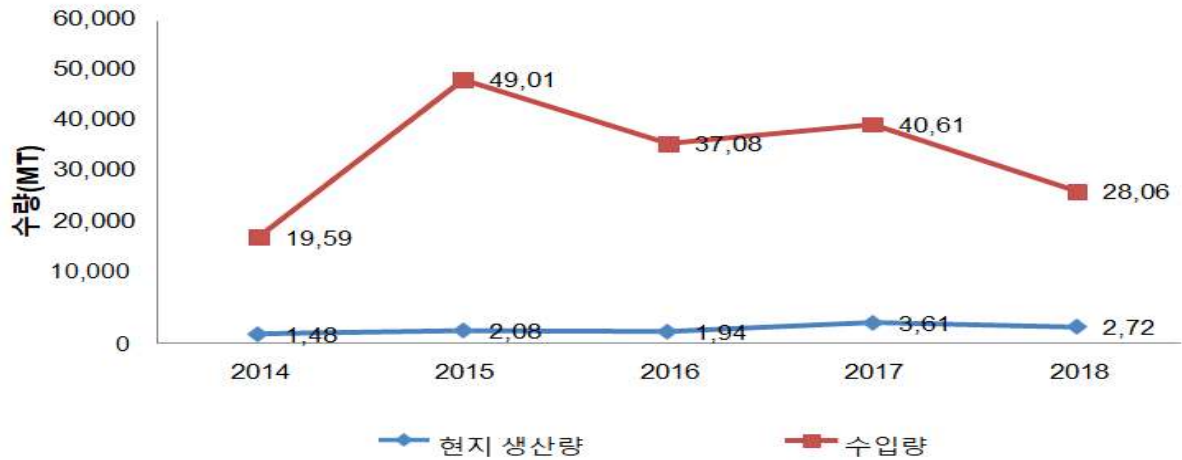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96개의 CFC 직판점이 존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스리랑카의 서부 지방에 위치해있음

6. 통조림 생선 생산 현황

- 통조림 생선은 어류 및 수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임. 통조림 생선 수입은 2018년의 각각 총 수입량 및 수입액의 약 33%와 26%를 차지하였고, 수입량 28,068MT은 약 86억 1600만 Rs.에 해당함
- 이것은 2017대비 수입량 및 수입액이 12,546MT(31%)와 9억 9000만 Rs.(10%)가 감소한 수치임. 통조림 생선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는 현지에서 통조림 생선을 합작으로 생산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하루에 10,000개의 통조림을 생산할 수 있는 첫 번째 통조림 생선 제조 공장은 2012년에 Galle에 설립되었고, 그 이후 하루에 24,000개의 통조림을 생산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장은 TESS 기업 집단 에 의하여 Paliyagoda에 설립됨
- 현재 스리랑카에는 6개의 통조림 생선 제조공장이 운영 중이며, 2018년의 통조림 생선 총 생산량은 640만MT임. 통조림 생선의 수입량은 2015년에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마 정부가 통조림 생선에 부과하는 수입세가 50%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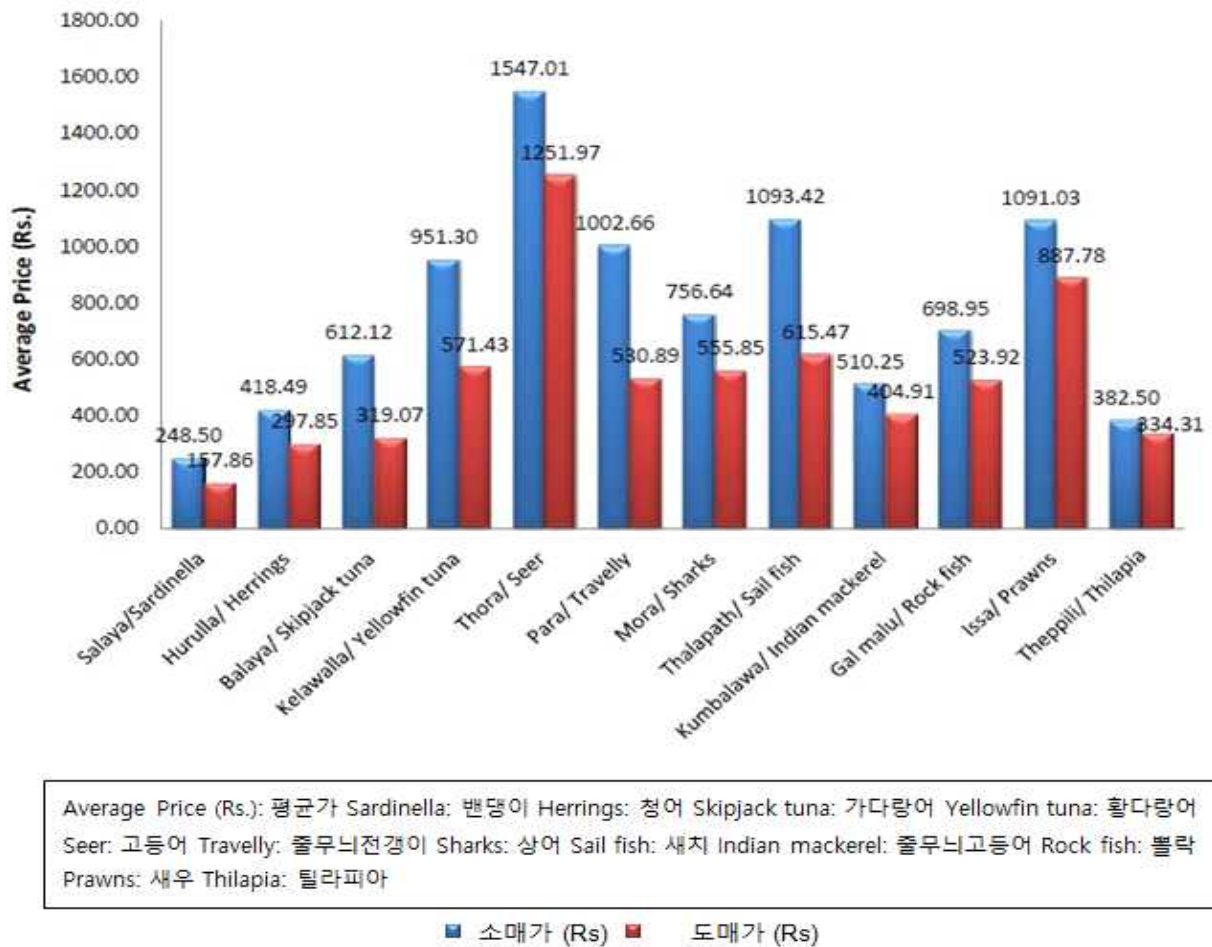
7. 어가 현황

- 어가는 수년 간 자주 변동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시장의 어류 공급량은 계절성 변동을 비롯한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어류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의 인식, 구매력, 생선의 품질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해양 어종 중에서는 삼치, 새치, 트레발리, 그리고 황다랑어는 높은 가치를 가지며, 민물에서는 틸라피아와 고부가가치 어종임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그림 14] 통조림 생선의 현지 생산량 및 수입량 (2014-2018)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그림 15] 2018년 어종별 소매가 및 도매가

- 2018년 기록상으로는 삼치(thora)가 가장 높은 도매가와 소매가를 기록하였으며, 도매가와 소매가 사이의 가격차이(마진)은 295Rs. 였음. 추가로 새치와 새우(prawn)는 시장에서 합리적인 높은 가격에 판매됨. 2018년 새치 및 새우(prawn)의 도매가와 소매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각각 478Rs.와 203Rs.임

8. 어류 및 수산물의 소비

- 고품질의 단백질 함량과 상대적으로 적절한 가격 덕분에 스리랑카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에게 생선은 가장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국제식량농업기구, 2015). 활어, 건어물, 그리고 통조림으로 활용되는 생선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해산물이며 스리랑카에서 소비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56.1%를 차지함(국제식량농업기구, 2011). 활어, 건어물, 통조림 생선의 1인당 소비량은 각각 11.8, 3.6, 그리고 1.4 kg/년임. 지난 10년간, 스리랑카의 1인당 활어 소비량은 30%가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건어물의 소비는 9% 감소하였으나, 통조림 생선의 소비량은 [표 18]에서 보이는 것처럼 2배 상승함

[표 18] 활어, 건어물, 통조림 생선의 1인당 소비량 (kg/year)

품목	2006/2007	2009/2010	2012/2013	2016
활어	9.1	10.8	10.9	11.8
건어물	3.9	3.8	3.6	3.6
통조림 생선	0.7	0.7	0.6	1.4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Chapter

3

스리랑카 수산업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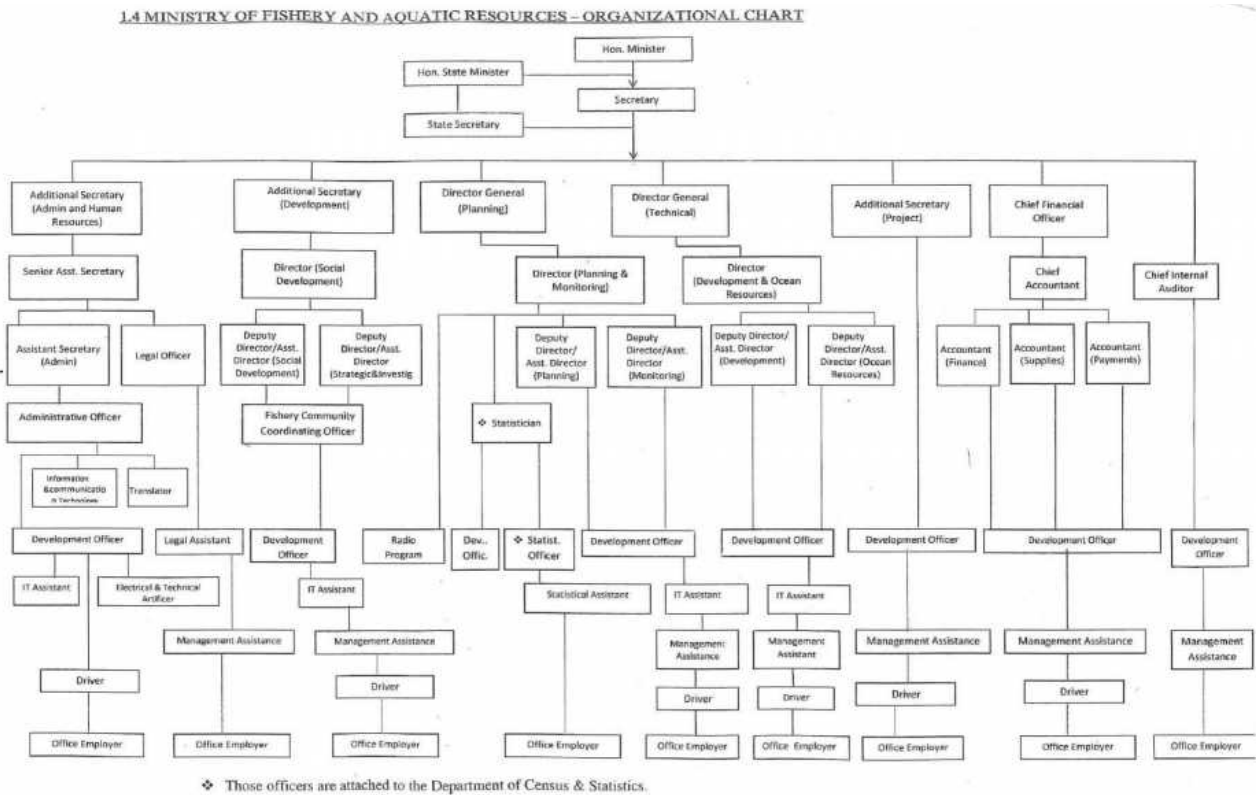
제3장 스리랑카 수산업 제도

1. 관련 기구

스리랑카 수산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1) 수산양식자원 개발부(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 비전 : 수산 및 수산 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남아시아 지역의 리더
- 미션 :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수산 및 수산 자원의 활용을 관리
- 목표 : 정부는 수산 및 양식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의 이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함
 - ① 과학 기반 정보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 ② 지역 및 국제 의무 준수
 - ③ 해양 어업 생산 증가
 - ④ 양식업 및 내수면 어업 생산 증가
 - ⑤ 양식어류 수확 후 손실 최소화 및 부가가치 증가
 - ⑥ 1인당 어획물 소비 증가
 - ⑦ 수출 수입 증가
 - ⑧ 여가, 고용 및 기업 개발 기회 개선
 - ⑨ 어업종사자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활동 개선



[그림 16] 수산부 조직도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2) 하부 조직

 <p>Department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DF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어업의 관리, 스리랑카의 수산 자원 개발 및 보존 · 책임 - 수산물 자원법 제2호(1996) 도입, 수산 관리 활동 및 법률 조항 업데이트 지역 및 국제 협약 및 규정 준수
 <p>National Aquatic Resources Research & Development Agency (NAR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개발, 보존관리 · 책임 - NARA는 1981년 국립 수산 자원 연구원 법 제 54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수산 자원 및 양식업, 수산 기술, 환경, 해양학 및 수로학 연구 담당
 <p>National Aquaculture Development Authority (NAQ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내륙 어업 및 양식업 기반의 문화 개발 및 관리 · 책임 - NAQDA는 1998년 국립 수산 양식 개발청 법 제53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내륙 어업 및 양식업을 위한 지원, 새우 양식 모니터링 및 양식 훈련 시설에서의 어류 종자 공급 담당
 <p>Ceylon Fishery Harbours Corporation (CF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항 및 정박지의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 책임 - CFHC는 1957년 산업법 제49호 의거 국가사업 측면에서 설립되었으며, 어항 20개와 정박지 58개 운영 중
 <p>Ceylon Fisheries Corporation (CF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최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시장 개입 · 책임 - CFC는 1957년 산업법 제49호 의거 국가사업 측면에서 설립되었으며, 어류와 얼음의 구매 및 판매, 냉동시설 운영 및 어업 부산물 판매를 담당
 <p>Cey-Nor Foundation Lt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어업 준비물 및 어구 공급 · 책임 - 2007년 기업법 제7호에 따라 등록된 Cy-Nor는 유리 섬유선박의 제조 및 판매와 어망 및 장비 공급을 담당

[그림 17] 수산부 하부 조직

자료: Ministry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Development

3) 어업협회(Sri Lanka Association for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SLAFAR)

○ 설립 : Sri Lanka Association for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SLAFAR)는 수산업 및 수산 자원의 활용,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학자, 학계, 기술자, 개발자 및 기업가가 구성한 비영리 자발적 조직임. SLAFAR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250명 이상임. SLAFAR는 아시아 수산 협회에 소속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목표

- ① 스리랑카의 어업 및 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 및 협력을 촉진
- ② 스리랑카 내에서 어업 및 수산자원에 관한 활동과 관련된 정부 및 비정부 조직과 연락 및 협력
- ③ 스리랑카에서 수산 자원의 건전한 활용, 어획, 보존 및 개발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식 형성 및 전파
- ④ 수산 자원의 개발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 및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과학자 및 기타 관련자를 위한 포럼 역할 수행

○ 역할

- ① 매년 스리랑카의 어업 및 수생 자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저널인 Sri Lanka Journal of Aquatic Sciences 발간 [저널은 FAO Aquatic Sciences and Fisheries Abstracts (ASFA) 및 Cambridge Scientific Abstracts와 같은 국제 목록 색인에 기록]

- ② 학교 어린이, 교사 및 학부생, 어업종사자, 어획물유통자, 수산 회사 관련자, 관상용 어류 사육자, 수산 검사관, 정책 입안자 등에게 수산 및 수산 자원과 관련된 현재 주제에 대한 초청 강연, 세미나, 워크숍, 패널 토론 등의 행사 개최
- ③ 스리랑카의 어업 및 수산 자원에 관한 과학 간행물을 수집 및 편집하고 뉴스 레터와 브로셔 발행
- ④ 자원 조사 실시 및 양어장 및 양식업 종사자에게 현장 교육 제공

2. 관련 법 및 제도

1) 수산업법

1996년에 제정된 수산업 및 수산자원법 제2호는 스리랑카 해역에 대해 제한된 어업법으로 이것은 스리랑카의 수산 및 수생 자원의 관리, 보존 규제 및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이 국내 법률은 동일한 법에 따라 구성된 일련의 규정에 의해 강화되었음.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배경은 약 1,600척의 어선의 공해조업으로 인함이었고, 이로 인해 스리랑카는 1982년 이래 공해에서 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는 여러 국제 협약과 협정을 비준 하였음. 그러나, 이 협약은 국내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공해 함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 조치가 취해짐

수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새로운 관리 조치를 기반으로 여러 국제 어업 관리 협약을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에 따라 공해에서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 (IUU 어업)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많은 보존 관리 조치가 채택되었음. 스리랑카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국이 되어 이러한 보존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함

한편, 2008년 EU는 수산물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특히 2010년

1월부터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에서 규정 한 국제 협약에 따라 규정된 보존관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EC규정 1005/2008)을 발표함 위의 상황을 고려하고, 공해 어업의 법적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1996년 수산 및 수산 자원법 제2호에 대한 개정안이 도입됨. 2013년 개정법 제35호(국제 의무 포함)는 2013년 11월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5년 2월 제재(벌금) 강화를 위해 2차 개정안이 통합되었음. 수산업법 61 조에 따른 장관이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인 “책임 있는 어업”과 관련된 법적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규정이 도입이 허용됨

- 공해 어업
- 어획량 데이터 수집
- 낚시 장비 마킹
- 선박 모니터링 및 수산 관리 센터 관리
- 항만국 조치에 대한 규제
- 취약한 상어 종 금지

현재 스리랑카는 공해에서의 “책임 있는 어업”에 대한 주요 법적 요건을 법적 채택을 통해 충족하고 있음

2) 국가 수산 및 양식 정책

국가 수산 및 양식 정책은 해양 어업, 수산양식 및 내수면 어업, 소비자 및 시장, 블루이코노미, 기타 분야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각 정책은 계획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2018-2025년의 기간 동안 실시해야 할 활동과 투자를 명시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됨

○ 해양어업

2018년 기준 스리랑카의 국가 어업 생산량은 527,100MT으로, 이 중

약 430,000MT(83%)은 EEZ 및 공해를 포함하는 지역의 해양어업에서 이루어짐. 어업 생산량은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 증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선의 통제된 확장, 자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다음은 해양 어업에 적용되는 정책임

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 사회, 경제, 생태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증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함
- 생태계 및 예방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책임있는 어업 경영을 촉진함
- 멸종위기 및 보호종을 보호함
- 양식장 운영과 서식지 개선을 통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류 자원을 개발함
- 어선의 과잉 어업을 방지함
- 과도하게 어업이 이뤄지는 지역으로부터 이용이 덜 된, 혹은 이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어업 활동을 전환시킴
- 환경에 비교적 악영향이 적은 어업 활동 및 장비의 사용을 장려함
- 스리랑카 해역에서 연구개발목적을 제외한 외국 어선의 조업금지 조치를 유지함
- 국제 조약에 명시된 어업 관리 조건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어업을 장려함
- 공해 어업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어업에 대한 권한은 어군 탐지, 선상 어류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갖춘 어선에 한해 제공함

② 거버넌스 강화

- EEZ 어류 자원의 과다 이용에 대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어업 관리 및 개발에 사용함
- 공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현지 어선에 어획 할당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은 어업 관리 및 개발에 활용함
- 계획 수립, 관리 및 보고에 관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함
- 공동 거버넌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함
- 시간적, 공간적 계획을 수립함
-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개발함

③ 어업 생산량 증가

- 어부를 위해 어업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어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EEZ의 이용되지 않은, 혹은 덜 이용된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을 촉진함
- 연승 어업을 진행할 때, 살아있는 미끼를 포함해 지역에서 생산된 미끼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외래 어종의 도입을 촉진함

④ 지역 및 국제 협약에 대한 준수

- 지역 및 국제 어업경영 포럼에 적극 참여함
- 국제 조약 및 지역어업관리기구(RFMO)에서 규정한 어업 관리 조치를 준수함

- 고도회유성 어종 및 경계왕래성 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른 연안국과 직접적으로 혹은 RFMO를 통해 협력함
-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식품농업기구(FAO)와 협력함
- 해상 노동에 관한 국제 노동 협약 및 국제 해양 협약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함
- 항만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조난당한 외국 어선들에게 항만 접근과 지원을 제공함

⑤ 사회 기반 시설

- Ceylon 어항 조합(CFHC)를 통해 주요 어장을 설치, 운영함
- “그린 어항” 및 다목적 어항의 운영을 촉진함
- 민간부문의 기타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설치를 촉진함
- 정박지와 작은 어종의 도입을 위한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을 어촌 사회에서 운영하고 유지하도록 함

⑥ 어선

- 어선의 설비 과잉을 통제함
- 어선의 품질 보증을 개선함

⑦ 해상 안전 및 직업 안전

- 국제 표준에 따라 바다와 육지에서 안전, 건강하고 공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함
- 해상 안전과 직업 안전을 위한 보험 제도의 수립을 촉진함

○ 수산양식 및 내수면 어업

스리랑카는 석호, 하구 퇴적지, 강, 지속성/계절성 저수지, 습지(범람호) 등 내륙 수역이 넓어 수산양식업과 내수면 어업의 추가 발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연간 약 87,000MT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는 수산양식과 내수면 어업은 전국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선택권임. 수산양식을 위해서는 토지 자원과 수자원이 필요한데 이 둘은 다른 많은 개발 활동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와 충돌할 수 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수산양식의 발달은 사전 공간 계획과 환경적,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 평가가 필요함. 수산양식과 내수면 어업의 개발에 적용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 내수면 어업 관리에 생태학적 접근법을 적용함
- 내수면 어업에 수생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함
- 석호와 하구퇴적지에서 어선의 길이와 엔진 용량을 규제함
- 저수지에서의 어업에 전동 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수산양식의 개발에 시간적, 공간적 계획을 세움
- 수산양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및 수자원의 배정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평가 후에만 시행함
- 수산양식 프로젝트가 승인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되는지 확인함
- 수산양식-동물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함
- 수산양식에서 최적관리기술(BMPs)의 사용을 촉진함

② 거버넌스 강화

- 계획, 개발, 관리 및 보고를 위해 관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함
- 공동 관리 및 공동 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함
- 거버넌스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함
- 내수면 어업에서 얻는 수입의 일부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활용함

③ 어업 생산량 증가

- 내륙 수역에 적합한 어업과 수산양식을 개발함
- 내륙 수역의 이용되지 않은, 혹은 덜 이용된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을 촉진함
-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수산양식을 확장하고 강화함
- 수생 생물 종의 도입에 대한 식량농업기구(FAO)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토착종의 양식 및 새로운 외래종의 도입을 촉진함
-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산양식에 이용되는 어종의 유전적 성능을 개선함

○ 소비자 시장

어업과 수산양식의 기본 목표는 인간이 먹기 위한 생선을 생산하는 것임. 물고기는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산, 비타민 A와 D, 미네랄 및 칼슘, 요오드, 철,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량의 영양소를 제공함. 좋은 영양 상태는 개인의 성과를 높게 하고 정신적으로 민첩하게 해주므로, 이는 결국 거시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성장으로 이어짐. 영양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어업과 수산양식은 소득과 생계의 제공자로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FAO에 따르면, 식량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식생활 요구,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 요구량, 그리고 식품 선호도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해 경제적인 접근이 가능할 때에 존재함. 생산 및 유통되는 생선은 수확 후 손실(부패)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야 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좋은 식품안전을 가져 최종적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함. 생선은 한 국가의 모든 분야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① 식품안전, 식품보장 및 영양

- 더 많은 사람들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소득 수준의 고용을 창출함
- 현지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품질과 식품 안전을 보장함
-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어류의 섭취를 장려함
- 어획량이 적은 시기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류를 공급하기 위해 예비용 어류를 비축함
-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 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함

② 수확 후 손실(부패) 제거 또는 최소화

-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인프라 관련 시설을 개선함
- 최적의 생선 손질 과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킴

③ 수출의 증가

- 수출지향적 어업 및 수산양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
- 국제시장에서 허용되는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함

- 수출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외래종의 수입과 양식을 장려함
- 관상용 어류 및 수생 관상용 식물의 생산과 수출을 촉진함
- 혁신적인 제품을 포함하여 어업과 수산양식 제품의 시장 주도적인 생산을 촉진함
- 국제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는 어업 및 수산양식 제품의 친환경 생산이나 유기농 생산을 촉진함
- 스리랑카 제품의 브랜드화를 지원함
- 어업용 선박, 여가용 선박과 기타 수출용 선박 등의 건조를 촉진함
- 국제시장에서 인정되거나 선호되는 어업 및 수산양식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출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무역 협정을 개발함

○ 블루이코노미

“블루이코노미”는 해양과 해안의 생태계 건강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과 생계, 일자리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의 활용을 의미함. 블루이코노미라는 개념 아래 해양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생겨나고 있음. 해양 자원의 이익 최적화와 상관없이, 이 새로운 경제 활동 하에서는 일부 어부들이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산 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게 됨. 하지만 이 개념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스리랑카는 아직 관련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섬나라인 스리랑카가 해양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과 기회를 감안해 봤을 때 스리랑카가 어업 이외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이 블루이코노미의 발전을 이끌 것임

-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해양 산업 구축을 추진함

- 균등한 이익 공유를 통해 해양 생물자원탐사를 규제함
- 최대의 효율성을 위해 해양 활동의 통합을 촉진함
- 주류 어업과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여가를 위한 어업을 촉진함
- 정박지 설립 및 해양 기반의 관광산업을 촉진함
- 관광산업 촉진과 수산 자원의 확대를 위해 난파선을 보존함
- 항만의 관리와 개발에 “그린 항만 개념”을 적용함
- 해양 및 해안 환경 보전을 촉진함

○ 기타 분야

이 절에서는 해양 어업, 수산양식, 내수면 어업, 소비자 및 시장, 블루 이코노미를 포함하여, 전체 어업 및 수산양식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적용 가능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고용 기회 창출

- 어업 분야에서 가능한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
- 어촌 사회에 남겨진 과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과 소외계층이 부수적인 소득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속 가능한 통합관광산업 등을 포함한 사업 활동을 지역사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지역사회가 마을의 습지에서 수산양식 또는 양식-기반의 어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어업, 수산양식 및 새로운 해양 산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해 교육함
-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선장과 선원을 훈련시킴
- 생계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빈곤 완화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시행함

② 환경, 기후 및 자연재해

-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 관련된 과제와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함
- 어류 및 기타 살아있는 해양 수산자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함
-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생계활동의 재시작 및 재개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당국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
-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회복력을 함양함
- 연구 작업 및 제도적인 개입을 개선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③ 성별

- 여성 어업 활동에 대한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함
- 성별 주류화를 소규모 어업 개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함
-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자원과 이익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함

④ 어업인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개선

- 어촌의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
- 각종 개발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어촌사회에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는지 확인함
- 여성을 포함한 어업인과 어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함
- 토지자원, 수자원 및 수산자원에 대한 전통, 이주민, 최저생계, 그리고 장인 어촌사회의 권리를 존중함
-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함
- 바다, 내륙 수역 및 토지에서 안전하고 건강하며 공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함
- 어업 관리 체계의 설계, 계획 및 실행에 어촌 사회를 참여시킴
- 어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어업 경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어촌 사회에서 보건, 교육, 글을 읽고 쓰는 것, 그리고 디지털 포용 등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 국가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소규모 어업인과 어업 종사자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실현을 점진적으로 이행함

⑤ 보조금

- 보조금은 어업의 경영 도구로만 사용함
- 어업인들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함

⑥ 금융제도

- 민간금융기관에 어업인의 재무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장려함
- 은행 및 기타 공식 신용 기관이 어촌 사회의 금융 요구사항을 다룰 것을 권장함

⑦ 민간 부문의 협조

-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함
- 어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을 촉진함

⑧ 인권

- 어업 및 수산양식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함

⑨ 부정부패 방지

- 어업 및 수산양식 분야의 어획물을 포함한 부패 및 경제 사기의 예방을 위해 노력함

⑩ 어업인 조직

- 어업의 문제와 어업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대표할 수 있도록 어촌 사회를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그 권한을 강화함
- 통합 연안구역 관리와 어촌 사회를 연결시켜줌

Chapter

4

스리랑카 투자제도 및 현황

제4장 스리랑카 투자제도 및 현황

1. 투자환경

1) 개요

-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임

* 스리랑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특정 분야를 목표로 하여 조세감면과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 10월 이후부터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음

- 특히 투자보호협정으로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스리랑카 헌법(157조)에 명시됨
-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조치로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 현재 스리랑카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28개국에 이르고 있음..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BOI(Board of Investment)법임
- 1977년부터 제조업 분야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함
-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DI)는 189개 대상국 중에서 71위(2019년 기준)로서 고도개발지수국(High Human Development) 범주에 포함되었음

- 또한, 세계은행 인구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인구는 약 2,167만 (2018년)으로 216개국 중 57위이며, 국토면적은 6만5천km²로서 224개국 중 130위임
- 세계은행 2018년 GDP 자료에 따르면, 195개국 중 889억불로 70위이고, 스리랑카 문자해독률은 91%(15-24세는 98%), 초등학교 입학률은 97%, 식수 보급률은 96%로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음.
- 美 헤리티지 재단의 '2019년 경제자유지수'를 살펴보면, 스리랑카는 경제 자유도가 115위로서 전년대비 다소 하향되긴 했지만, 네팔(136위), 파키스탄(131위), 인도(129위), 몰디브(141위)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의 對스리랑카 투자(특히 제조업)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91-9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한국 내 임금상승 및 인력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스리랑카에 투자하게 되었음

2) 장 · 단점

- 장점
 - 100% 외국인투자 허용
 -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면세 혜택 및 외환관리상 특혜제도
 - 단순저임의 노동력 활용
 - 영어권으로서의 언어상 이점
 - 인도를 배후로 한 서남아 교두보로서의 지리적 이점
 - 서남아 국가 중 비교적 발달된 인프라 보유
 - EU의 GSP+ 특혜 회복 및 SAARC 지역의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

○ 단점

- 낙후된 산업수준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원·부자재 및 부품의 현지 조달 상 애로사항
- 도로,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취약
- 외환이동 규제 및 과중한 종업원 해고수당의 부담
- 단순 저임금 노동력 외에 고급 기능 인력의 확보곤란
- 연중 섭씨 28-30도를 상회하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3) 투자정책 및 법규

- 내전 종식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투자 장벽을 두기보다는 「헌법」 157조에 외국인 투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 (Law No. 4 of 1978, 일명 BOI Act)」을 제정하여 시행
- 외국과 체결한 양자투자협정은 「헌법」 157조와 「투자법」에 의거,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 또한 관계법규 및 투자청(BOI)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제공
 - 투자보장 협정국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28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국은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38개국

○ 외국인 투자제한

-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 등 투자제한조치도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음
-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투자제한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일부분야는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 투자지분에 제한이 있고, 투자청(BOI) 직접 승인분야가 아닌 투자제한분야는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함
-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스리랑카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으며, 외국기업이 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양도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외국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함
- 다만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지분 50% 이상의 법인이면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구매가 아닌 임대 가능하며, 4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

○ 외국인 최저투자금액은 2011년부터 수출품 생산기업(「투자법」 17조 해당기업)의 경우 3백만 달러이고, 내수시장용 제품생산 또는 판매 기업(「투자법」 16조 해당기업)의 경우 1백만 달러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높아 외국인 중소기업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투자청(BOI)과의 투자계약서상 주요 원·부자재의 국내생산 단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다 보니, 동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하지만 재정수입 증대 목적으로 세관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투자 계약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면서, 계약서상 국내생산 해당 품목의 수입 시 계약위반으로 상당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대부업(Money Lending) · 자본금 1백만불 미만의 소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당포업 · 연안어업 |
|---|--|

○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투자청(BOI) 이외 타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해운 · 무기, 폭발물, 군용차량, 비행기 물품 등 군용물품 제조 · 독극물, 위험한 약품들 제조 · 화폐, 동전, 보증 증권 인쇄업 · 복권업 ·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보석 채광업 |
|---|

○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투자청(BOI)의 자동 혹은 조건부 승인 분야)

외국인 투자지분 40%이내는 승인되나, 그 이상의 지분일 경우는 사안별로 검토 승인 되는 분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대상국의 수입쿼터, 시스템에 적용되는 수출제품의 생산 · 홍차, 고무, 코코넛, 쌀, 설탕, 향신료 재배 및 1차가공 ·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 · 국산원목을 사용하는 목재산업 · 어업(심해) · 교육 · 여행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 화물운송, 통관 · 해운업 |
|---|---|

- 투자방식 : 투자청(BOI)는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외국 자본투자를 허가하고 있음
 - Section 17 of the Act : 이 규정은 정부 경제정책에 부합되는 분야 및 특별히 고시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청(BOI)이 허가 및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투자청(BOI)은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규제 면제 등을 허가함.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제조업 최소투자금액은 1백만 불로 높은 편
 - Section 16 of the Act :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희망 분야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 가능분야로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일반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허가하는 규정임. 이 규정에 의하여 투자청(BOI)으로부터 허가된 외국인 투자는 국세청, 세관, 외환법 및 수입규제의 적용을 받음. 유한회사 기준 최소 투자액 25만 불임
- 투자인센티브
 - 2008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투자환경은 좋은 편임. 특히 2012년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조세 감면 폭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함. 2014년도에도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있었으며, 2016년부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법의 활성화 및 토지 소유의 개혁, 자유화를 추진하여 2020년인 지금도 개발 중에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함. 제도적으로 2개 종류(투자청(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투자청(BOI)법 16조에 의한 통상 국내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 조치 수혜가 가능함.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인세 면세(Tax Holiday)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이를 위해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 설정을 통해 조립 산업을 육성, 인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 공급 하려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4) 외국인직접투자(FDI)동향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도인 2017년의 13.73억 달러에 비해 17.3% 증가한 16.11억 달러에 달했는데, 주요 투자국은 중국(8.7억 달러), 인도(1.7억 달러), 싱가포르(1.4억 달러) 등임
- 주요 분야는 사회기반시설(60%), 제조, 통신 분야임
- 對스리랑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섬유 및 의류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주도했으나, 동 업종의 한국 기업들이 2000년도 이후 대량 타국으로 이전하고 2000년대부터는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미국 등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5월 타밀 반군과의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어 외국인 투자가 이전에 비해 활성화되었음. 정부는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외국기업으로부터 관광지에 대한 호텔건립, 및 리조트 단지 건립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2011년에는 스리랑카 최초로 FDI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주요 FDI 분야는 호텔 및 통신 등 인프라 분야임

- 2014년에는 투자유치가 16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2015년 총 FDI는 약 9.6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교해 소폭 감소함. 이는 2014년 10월 정부가 새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영향이 투자유치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새 법안은 2013년 통과된 외국인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가된 외국인 투자자는 제외하는 등의 여러 면제사항을 포함했으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율을 가진 상장회사는 토지를 구매할 수 없고 단지 99년간 토지를 임대만할 수 있으며, 매년 선불로 총 임대비용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함
- 시리세나 정부(2015-2019)는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외국인의 토지 임대에 대한 세금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막았던 토지법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표 19] 스리랑카 투자유치 현황 (2009-2018)

(단위: 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투자승인	3,835.7	-	-	-	-	-	-	-	-	-
투자실행	602	516	1,066	1,338	1,391	1,616	970	801	1,710	2,367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BOI), Investment Guidelines 2019, FDI

- 투자실행 기준으로 보면 섬유, 의류, 피혁 부문의 투자 감소는 현저하나, 아직까지 동 부문의 실 투자유치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금속가공, 기계, 운송설비의 경우 투자승인 대비 실 투자규모는 매우 적음. 08년부터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15년에는 08년과 비교해 1/4 수준으로 그 규모가 감소했음
- 11년 이후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 투자가 급증. 15년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감소된 것과 달리, 호텔 및 레스토랑 부문의 투자액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지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외국 대형 호텔 기업을 유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13년 이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투자총액 대비 가장 큰 투자 규모(15년, 약 4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0] 對스리랑카 투자국 (2009-2018)

(단위: 백만\$)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중국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네덜란드	모리셔스	UAE	싱가포르	미국
금액	2,783	1,681	1,292	917	887	745	597	589	588	325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BOI), Investment Guidelines 2019, FDI

[표 21] 업종별 스리랑카 FDI 실행 현황

(단위: 백만\$)

업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359.8	334	257	248	347.6	291.5
1. 식품, 음료, 담배	49.7	44.7	42.7	49.5	62.6	22.3
2. 섬유, 의류 & 피혁 제품	102.6	83.1	45.4	21.3	78.2	90.6
3. 목재, 목제품	1.7	2.5	2.8	3.1	2.3	4.9
4. 종이, 종이제품, 인쇄 & 출판	2.1	36.3	2.2	3.1	7.9	9.0
5. 화학, 석탄, 석유, 고무 및 플라스틱	114.4	91.9	75.4	99.5	57.6	97.3
6. 비금속 광물 제품	45.2	29.7	13.7	31.2	28.1	21.0

7. 조립금속, 기계 및 수송수단 설비	17.0	7.0	46.1	11.9	8.9	7.8
8. 기타 제조업	27.1	38.7	28.7	28.2	54.5	38.6
기타/농산업	8.5	5.7	3.9	1.9	1.4	0.5
서비스업	236.3	506.3	255.4	211.9	317.8	301.3
1. 호텔 & 레스토랑	67.9	68.4	181.9	141.3	252.6	223.4
2. IT & BPO	19.3	24.7	13.6	23.0	25.0	58.7
3. 기타 서비스업	149.1	413.3	59.9	47.6	40.1	19.2
인프라사업	786.8	682.5	453.4	339.5	1,043.5	1,773.7
1. 주택 및 오피스 건물 개발	217.6	339.2	212.1	78.5	540.6	397.8
2. 전화, 통신	359.8	152.5	138.8	243.6	209.0	522.2
3. 전력발전, 연료, 석유 및 기타	44.9	12.5	51.3	14.8	1.1	3.7
4. 항구 컨테이너 터미널	164.5	178.2	51.2	1.6	292.8	850.0
BOI(Non 투자청(BOI)) 투자	-	87.8	-	-	-	-
총 계	1,391	1,616	969.7	801.0	1,710.3	2,366.9

자료 : 스리랑카 투자청(BOI) / 스리랑카 중앙은행

- 실행액 기준 국가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0년대 전반기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이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중국, 인도의 투자 유입이 현저히 증가. 2018년에는 중국, 홍콩, 인도 투자가 과반 이상임
- 우선 중국은 항만, 고속도로, 전시장, 극장, 화력발전소, 정수장 등 외국기업에게 발주하는 SOC 프로젝트의 약 75%를 수주하고 있을 정도로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국이 對스리랑카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스리랑카의 지리적 위치가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 스리랑카 정부의 인프라 시설 정비 및 세제혜택 제공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2017년 들어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 2018년에도 지속 상승

[표 22] 국가별 FDI 유입 현황 (1998-2018 누적)

(단위: 백만\$)

연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2018
-	전체	894	680	897	1,373	1,611
1	중국	21	147	103	456	872
2	네덜란드	95	118	113	45	56
3	인도	60	72	126	180	177
4	싱가포르	120	27	48	203	138
5	말레이시아	48	-8	204	-1	23
6	홍콩	77	36	18	125	19
7	영국	75	29	39	76	64
8	스위스	5	21	3	17	64
9	모리셔스	38	21	-6	20	109
10	UAE	24	69	64	34	50

자료 : 스리랑카 투자청(BOI) / 스리랑카 중앙은행

2. 투자입지여건

1)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스리랑카는 투자청(BOI)에 의해서 수출전용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 산업단지(IP: Industrial Park) 등을 전국적으로 약 20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단지 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비자발급에서부터 노무 문제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투자청(BOI)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바람 (<http://www.investsrilanka.com/setting-up/where/>)

2) 산업단지

[표 23] Katunayake EPZ

규모	531에이커
위치	콜롬보 공항 근처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US \$6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660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Cubic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Cubic Meter ○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 605.00 per Metric Ton 단, 투자청(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Sisil Fernando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2252362 ○ Mobile: +94 77 7986474 ○ E-Mail: fernando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katunayake-epz/

[표 24] Biyagama EPZ

규모	531.54에이커
위치	Gampaha와 콜롬보 공항 중간 지점에 위치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d Premium: US \$50,000 (Minimum Rate/Period of lease - 50 years) ○ Ground Rent: US\$ 4,235 per acre per annum ○ Water Charges: Rs. 75.00 per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eter 단, BOI(투자청)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me: Ms. S. K. Boteju ○ Designation: Director (Zone) ○ Office: +94 11 2465212 ○ Mobile: 비공개 ○ E-Mail: 비공개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biyagama-epz/

3. 투자진출형태

1) 법인

- 외국인 투자가는 스리랑카 투자청(BOI-Board of Investment Sri Lanka) 또는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또는 협상) 이외에 회사설립 신고만으로도 되는 분야일 경우에는 등기소(DRC)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통해서도 설립이 가능함
- 스리랑카 투자청(BOI) 관리대상 희망기업은 투자청(BOI)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 기간 조세 감면 및 투자청(BOI)으로부터의 행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음. 주로 수출품 생산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해당함
- 취약분야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처와 직접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상코자 할 경우임. 주로 단일공사 프로젝트 추진 또는 PPP형 BOT 공사 추진 시 관련 부처의 경쟁 입찰 수주나 수익계약을 통해 투자가 진행됨
- 스리랑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중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 분야가 아닌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로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 등기소를 방문해 회사 설립 신고절차만 거치면 됨
- 법인 설립절차
 - Registrar of Companies에서 같은 회사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음
 - 회사의 정관 (memorandum) 또는 인가서에 대한 공인된 사본과 함께 Form 44, Form 45, Form 46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다운로드 링크: http://www.drc.gov.lk/?page_id=1998)

2) 지사(Overseas company)

- 외국인 투자가의 스리랑카 내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설립 시 이를 통칭해 °Overseas Company °(Corporate Act 2007에 근거)로 칭함
-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소(DRC)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함

3) 지점(Branch Office)

- 모기업 현지 사무소로서 지점 설립의 목적은 모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제고, 모기업의 전략에 따른 판매활동 전개 등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사와 현지법인 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책임 소재에 관한 것으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법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되지만, 지점의 경우는 모기업에까지 그 책임소재가 있음.
- 지점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200,000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조사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는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음
-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의 영업분야가 소매업(Retail Trade)일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투자 금액이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이유는 자본금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이기 때문임

4) 연락사무소

- 상기 지점(Branch)의 업무 영역 중 영업활동(Commercial Trading & Industrial Activity)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형태로, 최소자본금

납입의무가 없음. 프로젝트 오피스는 낙찰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수입 및 지출업무는 가능함. 프로젝트 종료 시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침

4. 회사유형

1)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입이 불요함
- 최소 7명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음. 아울러 최소 2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함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참석자(의결권 보유기준)의 75% 이상임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이며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주식회사는 상장기업(Public Limited Company)의 경우 기업명 끝에 PLC로, 비상장 기업(Limited)의 경우 Ltd.로 표기함

2)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설립 시 주식회사와 같이 최소 법정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납입이 불필요함
-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투자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1명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함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Share)을 공개 모집(Public

Subscription)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 개인(Private hands)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책임한계는 주식회사와 유사함. 아울러 출자금 공개모집을 원할 경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추진하면 됨

- 1인 유한회사는 없음
-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외국인 또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현지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있음.
- 유한회사는 기업명 끝에 (PVT) Ltd 또는 (Private) Limited로 표기함

3) 개인사업자

회사 형태가 아닌 Proprietorship 형태를 취하는 영업 행위로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이 있고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주어지지 않음

5. 청산 및 철수

1) 개요

스리랑카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철수 및 청산 시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스리랑카 회사법(Companies Act No. 07 of 2007)의 적용을 받음. 단, 투자법인의 청산은 투자청(BOI)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반면, 현지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차이점임. 투자청(BOI)에서는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해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자조건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에 청산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함

2) 자발적 청산과 법원 결정에 따른 청산

Winding up Rules of 1939에 따르면, 투자법인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투자청(BOI)에 보고해야 함. 이에

따라 노사관계부 등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위배사항이 있거나 청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감사를 해 투자청(BOI)에 보고함. 이후, 문제가 없을 시 투자청(BOI)의 철수 및 청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이외 노무 관련 사항은 EPF/ETF 법을 따르며 청산금을 송금하는 데에 필요한 승인절차는 없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 동안 비즈니스 활동이 없었을 경우,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원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탄원서, 진출서,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지명하게 됨

3) 유의 사항

실제로 철수 및 청산 시 실무적인 문제에 자주 부딪히므로 투자 시작 시점부터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보관할 필요가 있음.. 과거 투자법인 철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하는데, 몇 년 전 한국 업체가 정식 철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해 현지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음

또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무리하게 청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가 활동기간 중 제공된 인센티브를 모두 환급해야 함. 이는 사전에 계약한 프로젝트 미완료 시에도 해당함. 청산 시에는 종업원 정리해고수당 방정식에 따라 많은 수당을 예상해야 하며, 투자기업에는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청산 시 과거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 징수하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도 모두 보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6. 조세제도

1) 법인세

- 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법인들은 주류와 담배의 제조 및 유통(40%)을 제외하곤 28% 정상세율(2011년 4월부터 정상세율이 35%에서 28%로 조정)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투자청

(BOI)회사의 경우 투자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100% 면제(Tax Holiday), 10% 또는 15%의 특혜 법인세(Concessionary rate)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투자청(BOI)과의 협상이 필요함

- 일반기업일 경우에도 관광, 수출 및 과세소득이 500만 루피(약 4만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양허세율인 12%를 부담. 원래 동 양허세율은 외국인 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에 한정되도록 규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외국인 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있음

2) 개인소득세

- 모든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음.. 연 소득 50만 스리랑카 루피 미만은 면제이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a sliding rate scale 계산방식에 의해 부과됨
 -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율과 면세구간이 역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됨
 - 500,001~600,000 루피: 4%
 - 600,001~1,200,000 루피: 8%
 - 1,200,001~1,800,000 루피: 12%
 - 1,800,001~2,400,000 루피: 16%
 - 2,400,001~3,000,000 루피: 20%
- 그 이상의 소득에는 2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아올러, 도박, 술, 담배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40%의 소득세를 납부함

3) 부가가치세

기존 매출액의 12%를 부과하던 VAT는 2016년 5월 2일 국회법 통과 후 15%로 적용

4) 특별소비세

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CESS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량 혹은 종가세 방식으로 품목별로 1%에서 35%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품목별 확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ustoms.gov.lk/public/files/tariff/cess2018.pdf>

7. 외환제도

1) 개요

- 외환관리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에 근거해 스리랑카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Sri Lanka) 외환관리국이 관할하고 있음
- 환율 결정은 관리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변동 관리위원회(Managed Floating Committee)가 주요국 통화와 SDR을 감안해 매일 발표함. 주요 교역상대국 6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의 물가 동향 및 화폐가치 변동과 자국의 물가동향 등을 감안해 상한 및 하한선을 결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의 주요 공급 동향에 따라 매일 환율을 결정 발표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독립적인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외환의 투기적인 요소가 감소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참고로 스리랑카의 일일 환율 고시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홈페이지(www.cbsl.gov.lk)에서 확인 가능함

2) 외환규제

- 투자청(BOI)과 협약을 통해 일반외환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FCBU(Foreign Currency Banking Unit) 계좌를 통한 외화

의 보유, 입금 송금이 보다 자유로움.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해외송금 및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해외송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만 맞을 경우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나, 건별로 요구조건이 복잡한 편이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 함. 예를 들면 배당금 규모별 송금 한도액 등

- 외환거래는 공인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투자 관련 외환통제 현황을 보면, 현금대출업, 전당포, 자본금 1백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에는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통화법(the Monetary Law)이 수정돼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회사문서들을 심사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규제 권한이 강화됨

Chapter

5

한-스리랑카 수산업 분야 협력방안

제5장 한-스리랑카 수산업 분야 협력방안

1. 스리랑카 수산분야 투자 환경

- 인도양의 무역 허브로 수세기 동안 유명한 스리랑카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고도로 교육받은 젊고 역동적인 노동력이 풍부한 섬임
- 스리랑카는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인도 아대륙의 관문으로 부상했으며,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매우 유리한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14억 명 이상이 시장에 접근 할 수 있었음. 유럽 연합에 대한 우선접근권리와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및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가까운 장래에 특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수출 허브로서의 스리랑카의 입지를 확대 할 것임
-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스리랑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으며, 곧 중상위 소득 국가로 승격 될 국가로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이 투자환경은 현재 신흥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특히 해양, 어업 부문은 고대인들이 “인도양의 진주(The Pearl of the Indian Ocean)”라고 불렀던 국가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임

2. 수산분야 투자 영역

1) 어업분야

- 24 ~ 45m급 참치 연승 어선 도입으로 지역 공해 내 어선단 강화
- EEZ 내 오징어 및 심해 랍스터와 같이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고부가가치 종의 어획

- 스리랑카 해역 밖의 외국 어선에서 잡은 어류의 가공 및 재수출
- 수입된 어획물로 통조림 또는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재수출
- 현지에서 수출용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부가가치부여 - 현재 대부분의 어류, 새우 및 기타 수산물은 드레싱(전 어체에서 아가미, 지느러미, 내장 및 두부를 제거한 것) 처리만 하여 수출하고 있음
- 얼음 공장, 냉장실 및 콜드 체인 구축 - 이상적으로는 단일 투자자가 특정 해안 지역을 위한 얼음 생산 및 공급과 어획물 시장 판매를 연결하는 콜드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와 어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 항구에서 보트를 들어 올려 수리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박 수리 및 도킹. 이러한 활동은 Ceylon Fishery Harbors Corporation과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음. 투자자는 동 사업을 엔진 수리와 연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2) 양식분야

- 양식 산업단지 조성
- Trincomalee, Jaffna and Mannar 지역의 연안 양식
- 북부의 해초 양식 (Mannar, Kilinochchi 및 Jaffna 지역)
- Puttlam 지역의 기존 새우 양식장 현대화
- 북서부 지방의 실적이 저조한 새우 양식장의 연못 양식이나 붉은 틸라피아 또는 밀크 피쉬 양식 개선

- 스리랑카 관상어 및 관상용 식물 배양
- 다양성과 탄력성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구피와 같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관상어 양식
- 해삼 양식
- 이매패류 및 연체동물(굴과 홍합)의 배양
- 머드 크랩 (Scylla serrata) 및 블루 헤엄 크랩 (Portunus pelagicas) 양식
- 해양 양식(농어, 그루퍼, Cobia, 참치 등)

3) 어업 및 양식업을 위한 투입 분야

- 어구 생산 (낚시 줄, 어망, 낚시 도구 등)
- 새우 사료 및 기타 양식 사료 생산 - 현재 총 필요 자재를 수입에 의존. 원자재 중 어패류, 어분, 각종 곡물 등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음
- 수출용 보트 제조 - 스리랑카 회사는 엄격한 국제 요건을 준수하는 몰디브, 세이셸, 모리셔스, 중동 국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 국가 등에 어선, 유람선, 감시정(세관 및 해안 경비대), 구명정 등을 공급하고 있음

4) 기타분야

- 해산물 전문 식당 설립 -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해산물 식당 사업 가능성이 있음
- 정박지 설립, 고래 관찰 및 스포츠 낚시 시설 제공

- 생태 관광(Ecotourism) - 스리랑카의 멋진 생태 관광 자원은 최고의 자연 및 생태 여행 목적지 중 하나임
- 최첨단 수중 수족관 및 수산 박물관 설립 - 스리랑카에는 특히 해양 어류가 있는 대규모 공공 수족관이 없으며, 수족관은 수산 박물관과 연계하여 사업 가능